

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6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6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책임자 신 두 철 (한양대 교수)
공동연구자 조 찬 래 (충남대 교수)
조 예 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사무국장)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시민교육 연구과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16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 보고서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능동적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소양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Thinking and Relationship area)’과 ‘시민성 영역(Citizenship area)’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2017년도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실행과 운영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가족단위로 탈북을 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지면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층도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이탈 주민 중 29.5%는 아동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491명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의 지원 정책은 탈북에서 남한 정착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학습자의 특성과 배경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먼저 기본원칙과 방향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방법론적으로 이들에게 최적의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한 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 자신이 가능하면 스스로 계획·실행·평가의 학습과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탈북청소년 대상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이들의 교육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하고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남한에 입국하다보니 교육과정의 중간부터 학습을 하게 된다. 남한 입국 후 시·도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년배치가 이루어지다보니 이전 학년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생활을 시작한다. 특히 한창 공부하는 중·고등학생으로 생활하다보면 학교수업을 따라가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벅찬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의 정치구조나 제도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적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높게 나타난다.

둘째, 이들은 우선적으로 남한과는 매우 다른 북한의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 북한의 학교 수업은 매우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수업 분위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참여식 수업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토론형태의 수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부분 강의형태의 이론 주입식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탈북청소년들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부 행사에 참여할 때, 남북한 출신을 구분 짓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첫 만남 때 참여 학생들 간에 서로에 대한 소개와 출신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해지기 보다는, 자기소개를 통해 남한학생과 북한출신 학생을 구분 짓게 만들어 학생들 간의 편견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일지라도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넷째, 탈북청소년들은 다양한 참여식 수업과 놀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더 좋은 경험으로 기억한다. 책상에서 이론을 학습하는 강의식보다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 더 큰 흥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교사와 학교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도 매우 많은데,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해야 하는 중도 입국 학생들이라는 점에서는 여타 청소년들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사귀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탈북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태어난 곳과 교육받은 환경이 다르다 보니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마음을 여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주제와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든, 참여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나 수업방식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점이라고 보았다.

다섯째, 탈북청소년들은 또한 역할 게임이나 상황극 등을 통해 배우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참여에 수동적인 학생들이 많다보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정치사회화와 관련하여 북한에서의 투표경험은 선거에 대한 탈북청소년들의 인식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하였다. 단일 후보 또는 소수의 후보만을 놓고 투표를 하고, 모두가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북한 선거는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에도 선거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거나, 실질적인 선거의 의미를 왜곡하는 형태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한편으로는 투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전통적인 주입식 수업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지향하는 열린 수업모형과 활동지향학습 등을 강조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기초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교수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지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장차 사회와 정치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 사회관계 전망 등을 제공하고 풀어가는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개발되었다.

첫째, 교수·학습 방법의 기본모형과 더불어 특히 방법적 행위의 요인과 특징을 명료화하였다.

둘째,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을 교육상황(혹은 수업상황)과 여건에 적합하게 활용하였으며, 특히 학습자, 즉 탈북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참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접근방안으로서 활동지향학습과 문제지향학습을 강조하였고, 그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개발하였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은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Thinking and Relationship area)’과 ‘시민성 영역(Citizenship area)’으로 개발되었다.

가.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

- 나를 믿어봐
- 의사결정학습
- 가치명료화 학습
- 탄뎀 함께 만나기

나. 시민성 영역

- 협상게임: 소가 필요해
- 법과 우정: 천사와 악마게임
- 모의선거: 기권은 싫어요
- 선거시뮬레이션: 꼼꼼히 따져보아요
- 국제사회의 이해: 공존과 협력

연구진이 지금까지 제시한 부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17년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실행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안하였다.

■ 1단계: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완성, 모듈별 정교화, 파일럿 연수

- 주요 과제
 -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체계화
 - 강사양성과정 및 연수 계획, 교육대상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및 실행
 - 파일럿 교육(남북하나재단 또는 탈북청소년 단체 협의·섭외) 진행/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전문강사 위탁
- 추진 방식: 외부 위탁, 파일럿 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섭외 진행

■ 2단계: 탄뎀 탈북청소년 대상 강사양성 과정 및 프로그램 보급

- 주요 과제
 - 최종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강사양성
 - 관련 단체에 프로그램 보급
 - 교육 대상 확보 등
- 추진 방식
 - 전문 강사 양성 과정(기초, 심화, 전문)
 - 기존 민주시민교육 강사 교육 이수자, 탈북출신 교육경력자 등
 - 탈북출신 강사와 2인 1조 형태로 강사 양성(탄뎀파트너 전문강사)

■ 3단계: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진행

- 주요 과제
 -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진행
- 추진 방식 및 대상
 - 집합교육 및 방문연수, 1박 2일 워크숍
 - 대상 및 인원: 총 100명(탈북청소년과 남한출신 청소년 반절씩으로 구성)

■ 4단계: 워크숍(평가 및 향후 연수 계획 수립 등)

- 주요 과제
 - 개발 프로그램, 연수 등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평가
 - 향후 연수 계획 협의 및 네트워크 구축
- 추진 방식 및 대상 등
 - 방식 및 장소: 1일(서울 인근) 또는 1박 2일 워크숍(수도권 외)
 - 대상 및 인원: 내부, 관련단체 관계자

목 차

제1부

탈북청소년 현황과 과제, 지원

3	1. 북한이탈주민 개황
5	2. 탈북청소년의 현황 및 과제
5	1) 탈북청소년 현황
7	2) 탈북청소년의 특성 및 적응
7	(1) 탈북청소년들의 특성
9	(2) 남한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
10	(3) 남한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및 발전 방향
13	3. 탈북청소년 지원 기관 및 관련 교육 지원 현황
13	1) 공공기관의 교육지원
13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하나둘학교
13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14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15	(4)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7	2) 민간교육시설의 교육지원
17	(1) 여명학교
18	(2) 한겨레중고등학교
19	(3) 하늘꿈학교

제2부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고문헌

참고자료

23	1. 프로그램의 목적과 영역
25	2.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예시
25	1) 의사결정 및 가치명료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26	2) 탄뎀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27	3) 체험·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27	3.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 프로그램
27	3-1. 나를 믿어봐
28	3-2. 의사결정학습
34	3-3. 가치명료화 학습
46	3-4. 탄뎀 함께 만나기
53	4. 시민성 영역
53	4-1. 협상게임: 소가 필요해
55	4-2. 법과 우정: 천사와 악마게임
61	4-3. 모의선거: 기권은 싫어요
64	4-4. 선거시뮬레이션: 꼼꼼히 따져보아요
67	4-5. 국제사회의 이해 공존과 협력
69	5. 향후 실행계획 및 예산
72	
73	북한의 교육제도




표목차

3	〈표 1-1〉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3	〈표 1-2〉 재북 학력별 현황
4	〈표 1-3〉 재북 직업별 현황
4	〈표 1-4〉 지역별 거주 현황
5	〈표 1-5〉 연도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6	〈표 1-6〉 2016년 시·도별 재학 현황
6	〈표 1-7〉 학교 유형별 정규학교 재학 현황
16	〈표 1-8〉 남북하나재단의 탈북청소년 교육 및 시설보호 운영지원 현황
18	〈표 1-9〉 여명학교 교과과정 특징
19	〈표 1-10〉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통합수업활동
30	〈표 2-1〉 의사결정학습 단계 및 내용

그림목차

30	〈그림 1-1〉 의사결정수업 모형
----	--------------------



제1부

탈북청소년 현황과 과제,
지원



탈북청소년 현황과 과제, 지원

1 ■ 북한이탈주민 개황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947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한 해에만 1,000명이 넘으면서 이 후 매년 1,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였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누적된 입국자수는 29,350명으로,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5년까지의 입국자수를 기준으로 이들의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20,292명으로 70%에 달하여 남성 입국자의 2배를 넘어선다. 이러한 비율은 2000년대 들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입국 남녀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남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8,503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20,292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28,795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센터 입소 기준으로 집계.

출처: 통일부(2016).

〈표 1-1〉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학력을 살펴보면, 누적 입국자들의 약 70%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과 비슷한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대, 대학이상, 인민학교(소학교) 수준으로 높았다.

(2016년 8월말 기준)

구분	취학전 아동	유치원	인민학교 (소학교)	중학교	전문대	대학 이상	무학 (북)	기타	계
				(고등중)				(불상 등)	
남	404	136	742	5,249	732	976	351	40	8,630
여	392	182	1,217	15,225	2,034	1,061	477	132	20,720
합계(명)	796	318	1,959	20,474	2,766	2,037	828	172	29,35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해당 학력별 중퇴자 포함

출처: 통일부 통계자료.

〈표 1-2〉 재북 학력별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의 재북 직업별 현황은 2016년 6월 거주자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무직부양, 노동자, 봉사분야, 비대상(아동 등) 순으로 높았다. 무직부양은 전체 29,121명 중에서 13,999명에 달해 전체의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은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남성은 노동자, 무직부양, 군인, 비대상(아동 등), 관리직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무직부양, 노동자, 봉사분야, 전문직, 비대상(아동 등) 순으로 높았다. 재북 직업이 무직부양, 노동자, 봉사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70%가 여성이고, 이들의 직업이 무직과 노동자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말 기준)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등)	기타	계
남	368	640	3,712	3,104	71	74	207	401	1	8,578
여	112	91	7,350	10,895	1,048	176	451	418	2	20,543
합계	480	731	11,062	13,999	1,119	250	658	819	3	29,121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

출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표 1-3〉 재북 직업별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현황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절반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역에 약 64%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주 현황은 경기, 서울, 인천, 충남·세종 순이다.

(2016년 8월말 기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312	2,103	736	291	237	248	154	208	278
여	4,587	6,074	1,845	723	809	791	537	866	976
합계	6,899	8,177	2,581	1,014	1,046	1,039	691	1,074	1,254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44	175	141	153	117	162	59	7,518	
여	453	523	421	449	405	379	185	20,023	
합계	597	698	562	602	522	541	244	27,541	

* 사망, 말소, 이민, 주소불명, 보호시설 수용자 제외.

출처: 통일부 통계자료.

〈표 1-4〉 지역별 거주 현황

2 ■ 탈북청소년의 현황 및 과제

1) 탈북청소년 현황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491명이다.¹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탈북청소년의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수는 2009년 1,000명, 2013년 2,000명을 넘으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단위 : 명)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05.4	247(58.7)	131(31.1)	43(10.2)	421
2006.4	248(52.3)	166(35.0)	60(12.7)	474
2007.4	341(49.6)	232(33.8)	114(16.6)	687
2008.4	495(51.2)	288(29.8)	183(19.0)	966
2009.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0.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1.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2.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3.4	1,159(57.3)	478(23.6)	385(19.0)	2,022
2014.4	1,128(51.7)	684(31.3)	371(17.0)	2,183
2015.4	1,224(49.5)	824(33.3)	427(17.2)	2,475
2016.4	1,129(45.3)	765(30.8)	597(23.9)	2,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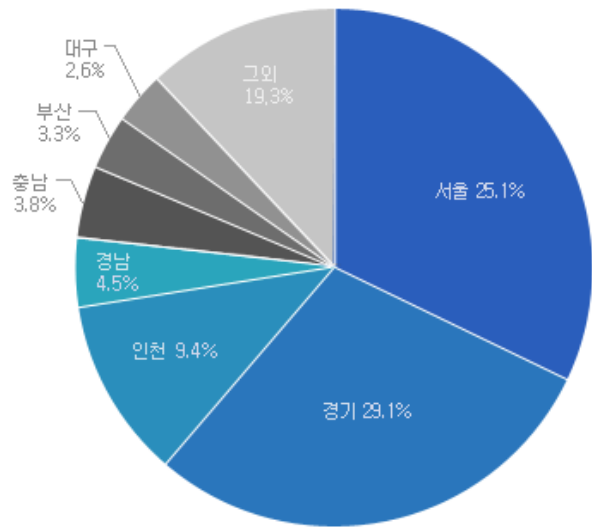
〈표 1-5〉 연도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탈북청소년들의 시도별 재학 현황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현황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전체 탈북청소년의 54.2%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천을 포함하면 전체의 63.3%가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지역별 재학 현황은 경기, 서울, 인천,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난다.

.....

1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사람도 탈북청소년 범주에 포함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학생수	시도별 비율	구분	학생수	시도별 비율
서울	625	25.1	강원	58	2.3
부산	83	3.3	충북	85	3.4
대구	65	2.6	충남	95	3.8
인천	234	9.4	전북	57	2.3
광주	80	3.2	전남	52	2.1
대전	38	1.5	경북	103	4.1
울산	47	1.9	경남	111	4.5
세종	7	0.3	제주	25	1.0
경기	724	29.1			
총계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표 1-6〉 2016년 시·도별 재학 현황

학교 유형별로 탈북청소년들의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 2,662명 중에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탈북청소년 6%를 제외한 94%의 학생들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 중 초등학교가 45%, 중학교 31%, 고등학교가 24%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입국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16.4)	595	534	370	395	272	325	171	2,662
	1,129		765		597			
	2,491							

*대안교육시설은 통일부 자료임(2016년 3월).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6).

〈표 1-7〉 학교 유형별 정규학교 재학 현황

그러나 연도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입국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탈북청소년의 특성 및 적응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와 탈북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특성, 남한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 남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1) 탈북청소년들의 특성

-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소년들은 우선적으로 남한과는 매우 다른 북한의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 북한의 학교 수업은 매우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수업 분위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참여식 수업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토론형태의 수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대부분 강의형태의 이론 주입식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물리나 수학 수업에 한하여 그룹별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분위기가 학교 수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거기서는 수업분위기가 정숙하고, 선생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해요. 그런데 여기오니까 너무 자유로워서 많이 놀랐어요.

- 탈북청소년 C

동영상은 수학이나 물리쪽으로 좀 보여주는데, 딱히 사회문제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풀어나가는 적은 없었어요. ...(중략)... 그룹별로 하는 것은 물리실험이나 화학실험 정도예요. 사회문제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지 않아요.

- 탈북청소년 D

- 그리고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중국이나 몽골, 베트남, 라오스 등의 제3국을 거치면서 힘든 과정을 경험하였다. 목숨을 걸고 북한경계선을 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긴장과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생존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이들이) 탈북을 하면서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하면 살수 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애들이 저에게 다 진실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도 진실하게 대해줬는데, 다른 선생님, 다른 학생을 통해서 들으면 그게 아니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으니까 개네들도 일종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가 애들이 나이는 20대 전후반인데, 사춘기를 지금 겪는 애들이 꽤 있어요. 사춘기라는 게 성장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 겪는 건데, 그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옛날에는 먹고살기 바빴는데, 걸리면 죽는 상황에서 이성이나 다른 상황에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나이대의 남한학생과는 다른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1살 된 남자애가 자기 사춘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춘기에 대한 정의를 해줬어요. 질풍노도의 시기 막 이러면서(웃음).. 그러니까 맞는 것 같다고(웃음). 그러더라고요.

- 여명학교 관계자 A

(탈북청소년들이)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문화 적응력이 (남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 한겨레중고등학교 관계자 B

○ 또한 탈북청소년들은 결손 가정인 경우가 많다. 탈북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북에다 가족을 두고 탈북한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가족 단위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보다는 한부모 가정이나 혼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정이 불안정하고, 가정으로부터 받아야 할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다 결손가정이에요. 부모님이 다 있는 경우는 10~15%정도 밖에 안되고 한부모 가정이거나 혼자 있거나. 탈북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가족을 북에다 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나왔는데 엄마는 팔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다 같이 있다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남한에 와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중략)...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걱정하고 죄의식도 있고. 어떤 애는 엄마 얘기만 하면 울어요, 엄마 감옥에 있는데 나 혼자 여기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안타깝죠. 당장 연락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에 있다 이런 걸 표출하는 경우만 해도 (학생들의) 10%는 되요. 얘기 안하는 경우까지 하면 3~40%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여명학교 관계자 A

○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하고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남한에 입국하다보니 교육과정의 중간부터 학습을 하게 된다. 남한 입국 후 시·도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학년배치가 이루어지다보니 이전 학년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응생활을 시작한다. 특히 한창 공부하는 중·고등학생으로 생활하다보면 학교수업을 따라가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이 벅찬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의 정치구조나 제도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적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중학교 3학년부터 한국에서 다녔는데... 그 앞의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듣지 않아 하나도 모르니까... 교육

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그래서 북한에서 온 분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와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세요.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너무 크니까. ..(중략)... (대한민국의 사회제도나 정부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먹고사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나에게 영향이 없으니까 좀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 탈북청소년 C

○ 북한에서의 투표경험은 이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형태로 작용하였다. 단일 후보 또는 소수의 후보만을 놓고 투표를 하고, 모두가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북한 선거는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에도 선거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거나, 실질적인 선거의 의미를 왜곡하는 형태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한편으로는 투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북한에서 투표방식은 한명의 후보자만을 놓고 모두가 다 참여하는 형태라, 반대가 없어요. 그리고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 와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지 투표하는 것에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탈북청소년 C

선생님이 (학급반장을) 지정하면 애들이 안 따라요. 그래서 2-3명 정도를 추천하면 학생들이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 학급반장이 됐어요. ...(중략)... 제가 정치를 싫어해서 (한국에 입국한 뒤에) 학교에서는 투표를 해봤는데, 그 외에는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선거를 했었는데, 여기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요. 하기 싫어서 맨 마지막에 투표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보고 했어요. ...(중략)...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나서도) 정치를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 자체도 별로 신뢰도 안 되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탈북청소년 D

(2) 남한사회 적응에서의 어려움

○ 북한의 폐쇄적 사회분위기와 수업방식,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결손가정 등은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가장 다른 차이점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 외에도 탈북청소년들은 입국 초기 남북한의 언어의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북한 사투리와 억양이 대한민국의 언어와 차이가 심해 아이들 사이에서 대화하기가 불편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외래어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용어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탈북청소년들은 입국 초기에 대한민국의 언어문화에 적응하고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힘들어 한다.

지금은 적응이 다 됐는데... 입국 1-2년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외래어와 영어를 많이 쓰니까. 길을 물어봤는데, (제가) 사투리가 심하니까 못 알아 듣는 거예요. 북한에 이름은 다 받침이 있어요. 이름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대부분 개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 탈북청소년 C

○ 그러다보니 또래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도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특히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거의 듣는 입장이고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말주변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북한의 사회 분위기와도 깊이 연관된다. 북한에서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보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정리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에도 초기 적응과정에서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데에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면이 강하다.

처음 중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말을 안 하고 거의 듣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얘기하는 TV 얘기나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무슨 애긴지 하나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재미있는지도 모르겠고 ... 말주변도 없었고. ...(중략)... 북한에서는 내 생각 자체를 그대로 얘기하는게 안되니까. 남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자기 생각을 잘 얘기하지 못하더라구요.

- 탈북청소년 C

거기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수동적으로 따라가요. 답을 하나로 딱 얘기해야 되고, 맞다, 틀리다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은 계속 가르쳐주지만 해요. 우리끼리 (수업시간에)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건 없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요.

- 탈북청소년 C

(3) 남한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경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및 발전 방향

○ 탈북청소년들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외부 행사에 참여할 때, 남북한 출신을 구분 짓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첫 만남 때 참여 학생들 간에 서로에 대한 소개와 출신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해지기 보다는, 자기소개를 통해 남한학생과 북한출신 학생을 구분 짓게 만들어 학생들 간의 편견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남북한 청소년

들이 서로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일지라도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남북한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애는 북한출신이다, 애는 남한출신이다 라고 구분짓는 게 싫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지, 여기(대한민국)서 살고 있고, 남한사람이고 싶은데, 구분 지으니깐. 처음에 출신 학교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하는 게 좋더라구요.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면 다가가기 더 어렵더라구요.

- 탈북청소년 C

○ 탈북청소년들은 다양한 참여식 수업과 놀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더 좋은 경험으로 기억한다. 책상에서 이론을 학습하는 강의식보다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 더 큰 흥미를 가진다. 청소년들은 교사와 학교수업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도 매우 많은데,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해야 하는 중도 입국 학생들이라는 점에서는 여타 청소년들보다 또래 친구들과의 사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탈북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태어난 곳과 교육받은 환경이 다르다 보니 또래 친구들을 사귀고 마음을 여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주제와 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든, 참여 학생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나 수업방식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점이라고 보았다.

청소년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노는 게 더 빨리 친해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책상에서 앉아 토론하고 하는 건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놀이를 통해서 친해지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 탈북청소년 C

게임식으로 부딪히고 놀고 하는 게 좋았어요. 일단을 사람들이 친해지고, 친해져야 깊이 있는 말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들... 모르는 애들 모아 놓고 얘기하라고 하면 걸만 도는 거예요. ...(중략)...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거 같아요.

- 탈북청소년 D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마음 여는 데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어떤 말부터 해야 애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약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낯가림이 조금 심한 게 있어서...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친해지는 게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 탈북청소년 C

○ 탈북청소년들은 또한 역할 게임이나 상황극 등을 통해 배우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다는 것이다. 참여에 수동적인 학생들이 많다보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상황극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을 하게 하는 참여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중략).. 의외로 아이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 잘 따라 하더라고요.

- 탈북청소년 C

애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싫어서 다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나중에 이렇게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탈북청소년 D

○ 틀에 박힌 생각이나 사고를 벗어나 다양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에 대한 선호도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의 수업방식이나 사회분위기 등의 경험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탈북청소년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제한된 경험과 성장환경이 고정된 사고로 생각을 한정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제약하는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 정형화된 수업과 사고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문제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수학문제 풀 때 제일 겁나는 게 답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가장 빨리 푸는지를 봐요. 틀리더라도 빨리 풀려면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좋았던 거 같아요. 간혹 답은 틀리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하니까요.

- 탈북청소년 D

3 ■ 탈북청소년 지원 기관 및 관련 교육 지원 현황

1) 공공기관의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여러 국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하나둘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을 꼽을 수 있다.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한만길 외(한만길 외, 2010; 2011)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정한 교육지원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지원계획은 탈북청소년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초기적응교육을 위한 학생 적응역량 및 전문인력 강화 지원,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사의 지도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종합적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을 지정하여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하나둘학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내 14-19세 연령의 탈북청소년들은 하나둘학교에서 초기 적응교육을 받는다. 하나둘학교는 2001년 1월 하나원에 개교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예비학교로 전환하였다. 하나둘학교에서는 입학과 편입학 전 준비교육과 보충학습, 학력진단과 진로진학 상담, 심리진단과 상담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정규학교 진학과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였다. 초기적응교육은 탈북 주민에게 새로운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학습과 정보를 제공하여 남한사회의 정착 및 적응을 위한 디딤돌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탈북학생의 초기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재라 할 수 있다. 하나둘학교 교재는 탈북 학생들의 기본교과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탈북 학생용 맞춤형 교육 자료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하나원 하나둘학교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증진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하나둘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은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기본교과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진학진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은 운영되지 않는다(한만길, 2013).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에 기반하여 교육부로부터 탈북청소년교육지

원 사업을 위탁받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입국 초기부터 사회 정착기까지 탈북청소년의 교육 및 사회적응을 위해 통합적인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방향을 이들의 사회 통합에 두고, 탈북청소년이 궁극적으로 남한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류사회에 어울려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다. 센터는 탈북청소년의 교육문제 진단과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탈북청소년의 교육기회보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한다. 중앙단위의 통합적 교육 지원 및 협력을 위해 중앙정부의 탈북청소년 교육대책 수립 지원, 시도교육청 탈북청소년 교육 업무 지원,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제 구축, 포털사이트 및 콜센터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중장기 연구 및 대책 수립, 통일교육포럼, 워크숍, 공동연구 등을 통한 대책 수립과 인식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크게 5가지로 제시되며, 탈북청소년 적응을 위한 단계별 지원, 학교 안과 밖에서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 성인 탈북주민 지원사업,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교육지원 정책연구 및 기초연구 수행이다. 이 중에 학교 안과 밖에서 탈북청소년의 교육 지원은 탈북청소년들의 학업 부진 상황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교사들의 탈북학생 이해 및 지도능력 강화를 위한 연수, 학교와 지역에 전담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지원 제도 형성, 남북한 문화적 차이 극복과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용 동영상 자료의 개발과 보급 등이 포함된다. 성인 탈북주민 지원사업은 탈북주민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탈북청소년들이 학습전략을 익히고 리더십을 배워 우수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NK청소년 리더양성 프로그램, 북한에서 교육분야에 종사한 교육자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력이 부족한 탈북청소년들의 학습지도를 담당하도록 하는 NK교사 아카데미 사업, 대학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예비대학 프로그램, 탈북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매뉴얼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시설들과의 네트워크 및 교육지원 인프라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은 크게 초기지원, 통합지원, 인식개선, 연수개발, 외부사업 5가지로 구분된다. 초기지원 사업에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초기적응지원을 돕기 위한 '레인보우스쿨', 진로지원 프로그램인 '무지개 job아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내-일을 job아라' 등이 있으며, 통합지원 사업에는 비교문화체험학습 '동기야! 놀자!', 통합상담 및 사례관리 '마을술술',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을돋보기', 가족캠프인 '다독임 캠프' 등이 있다. 인식개선 사업으로는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멘토링, 통합캠프가, 연수개발 사업에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문가 양성,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 외에 외부사업으로 탈북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탈북대학원생 장학 지원, 현대차그룹 지정기탁 외부사업인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젝트, 포스코 1% 나눔재단이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지원 사업, 친친 무지개 프로젝트, 국민체육진흥공단

의 문화예술체육사업 등이 있다.

지원재단은 하나원의 하나돌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각각 MOU를 체결하였으며,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레인보우체험학교의 비교문화체험학습 ‘동기야! 놀자!’는 하나원 재원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1박2일 동안 약 15명 내외의 탈북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기초생활 및 경제생활 체험, 대중교통 이용, 교육기관 탐방, 문화체험 등 실생활 위주의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초기 정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 활동을 제공한다.

지원재단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것은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족자녀 등 이주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신현옥 외, 2012: 67-69).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들은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합캠프는 전국의 중학생 연령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는 또래의 한국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의 청소년들을 만나 차이와 다름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활동가 양성 프로젝트는 청년활동가들이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다름과 차이의 인정과 인식제고를 돕는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차이를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를 통합의 기초로 바라보며,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장을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4)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은 정부차원의 정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립되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률 제30조에 따라 동년 11월 22일 지원재단이 정식 출범하였고 2011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재단의 사명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 자립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 기능과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과 가교역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재단의 정착지원 사업은 크게 초기정착, 일자리, 교육·청소년, 의료건강, 가족복지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이 중 교육·청소년 정착지원 사업에는 탈북청소년들의 학비 및 생활비 보조와 같은 장학지원, 해외연수 지원, 정보화교육 실시와 함께 통일미래리더 육성을 위한 예비대학 운영과 대학생 리더 육성, 통일 미래리더 네트워크 구축 교육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탈북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중도이탈, 방과 후 방임 등의 예방을 위해 대안교육시설과 방과 후 공부방, 그룹홈과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의 사업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담센터와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에 있어 중추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

기관분류	시설명	대표자	주소	
대안교육시설	다음학교(느헤미야코리아)	전 존	서울시 서초구	
	드림학교	김용달	충남 천안시	
	반석학교	하광민	서울시 서초구	
	우리들학교	윤동주	서울 관악구	
	한꿈학교	김두연	경기도 의정부시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강원도 춘천시	
방과후 공부방	부천시덕유사회복지관	홍갑표	경기도 부천시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조재희	대구 달서구	
	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배영길	대전 동구	
	전주YMCA	이영희	전주 완산구	
	청주TMCA	유재풍	청주 흥덕구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정영희	부산 해운대구	
	두리하나국제학교	천기원	서울시 서초구	
	겨레열학교	최동현	서울 양천구	
	금강학교	정팔용	서울 구로구	
	물망초학교	김중수	경기도 여주시	
	삼정학교	채경희	서울 구로구	
	남북통일학습지원단	박인규	경기도 고양시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김성민	서울 강서구	
	포항YMCA창포종합사회복지관	진선하	경북 포항시	
	하안누리지역아동센터	정병오	경기도 광명시	
	해피월드복지재단 새꿈터	안혜란	경기도 고양시	
	한민족학교	최화숙	서울 양천구	
	성비전교회	류언근	경기도 평택시	
	(사)큰샘	박정오	서울 강서구	
	경북이주민센터	김영달	경상북도 구미시	
	새일아카데미	조요셉	서울 동작구	
	자유터평생교육원	이호택	서울 동작구	
	그룹홈	사업 지원	가족	김태훈
꿈사리공동체			한명자	서울 영등
늘푸른청소년미래			기영희	서울 관악
매화			설안나	서울 동대문
베타니아			이선중	서울 성북
복자여명의집			원혜숙	서울 용산
수원나르샤			곽현주	경기 수원
안산나르샤			배은영	경기 안산
어울림쉼터			고명자	서울 구로
영원한도움의집			오혜정	서울 동대문
우리집2			마석훈	경기 안산
우리집3			조소연	경기 안산
한우리공동체		김권순	서울 강북	
운영지원	오뚜기쉼터	이지형	경북 구미	

출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표 1-8〉 남북하나재단의 탈북청소년 교육 및 시설보호 운영지원 현황

2) 민간교육시설의 교육지원²⁾

(1) 여명학교

여명학교는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각종학교다. 2004년에 개교하여 2005년에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여명 법인설립으로 인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었다. 2010년에는 서울시 교육청 지정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로 학력인가를 받고, 2013년에는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 과정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되었다. 2015년 1월부터는 통일부에서 학교예산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초등,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으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은 탈북청소년의 중학교 과정(북한학력, 남한학교, 검정고시)과 연령 수학능력 등을 감안한 심의를 통해 학년이 결정되고, 중학교 과정은 서울시 교육청의 중학교 과정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되어 여명학교에서 수업을 받되 입학과 졸업은 일반 중학교에서 한 것으로 기록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으로는 미인가 과정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두고 있어 연 2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으며, 초졸 검정고시 합격 시에는 중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중졸 검정고시 합격 시에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토록 하고 있다.

여명학교의 5대 중점교육은 자기주도 학습, 독서, 인성, 봉사, 건강이다. 교육과정의 특성은 크게 4가지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체험 활동,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과외 운영이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 본연의 존엄한 가치의 회복, 상호존중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호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
특성화 프로그램	가치관 교육	나눔 조희, 명사 특강, 예절 교육
	예술 심리 치유	미술치료, 전문 심리 상담프로그램(북한이탈주민 전문가 포함), 1인 1기(음악치유), 체육특성화(건강회복)
	사회적응 및 민주시민교육	사회생활 첫걸음, 민주시민 첫걸음, 열린사회 통일한국, 법과 생활, 경제와 생활,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한글반	비보호(제3국 출생자녀)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
	수능 준비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할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
	수준별 분반 수업	기초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을 학생수준에 맞게 분반하여 교육 결손 보완 및 학습동기 유발
	방과 후 수업	수업 결손 보강 미 실력 향상을 위한 보완학습 스트레스의 긍정적 발산을 위한 다양한 예체능 활동 멘토링을 통한 학습지원
	드림 프로젝트	진로가 명확한 학생들에게 직업 교육 지원(학원 수강) 학교: 기초직업교육(직업예절, 직업의식 등) 학원: 기술교육
사회적응력 향상	동아리 수업	학생의 취미와 소질 개발, 진로개발 지원

2 통일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단체를 의미한다.

교육과정	프로그램	내용
위한 체험활동		영상촬영, 요리, 노래, 태권도, 댄스, 영자신문 만들기, 만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체험활동	수학여행, 진로체험, 법체험, 개강 수련회, 졸업여행, 병영체험, 남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자기주도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독서	독서시간 30분을 매일 일과에 편성 주1회 독서수업을 통한 독서 전중후 활동 여명 권장도서 필독 및 독후활동(월1권)
	플래닝	일간 플래닝과 주간 피드백을 통한 자기주도성 고취
	진로수업	남북한의 상이한 직업세계와 산업구조를 이해시키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감안한 진로 지도(전문 진로교육기관 협력)

출처: 여명학교 홈페이지.

〈표 1-9〉 여명학교 교과과정 특징

(2) 한겨레중고등학교³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중등교육기관이다. 2005년 7월 11일 학교 설립을 인가 받았으며, 2006년 1월 25일 특성화중고등학교로 지정, 2006년 3월 1일 한겨레중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2008년 1월 21일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청소년반을 전면위탁 받았다. 학교 설립의 주체는 학교법인 전인학원이며, 설립주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비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서, 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은 통일부에서 지원하며 운영비 부족분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학교 운영의 기본 개요는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 적응력 함양을 목표로 하며, 학교 형태는 사립 중·고등학교 통합 대안 특성화학교(Transition School)이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 통일 인재 육성, 배움의 공동체 형성, 맞춤형 배려교육의 기회 확대를 학교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교과과정은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기학교로서의 교육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교과 교육과정 외에 정서안정 교육과정, 직업진로 교육과정, 사회문화적응 교육과정, 애프터스쿨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특색사업으로 혁신학교 준비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 준비교를 운영함으로써 탈북청소년에 맞는 맞춤형 진로교육,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탈북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키고자 한다. 교과교실제는 전교생이 모든 교과의 이동 수업을 전제로 한 1교사 1교실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총 30명의 교사⁴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과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유네스코 협동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민주·시민 의식 교육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실 밖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특별활동으로 매년

3 2016년을 기준으로 예산의 98%이상을 정부이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4 교장과 교감 포함.

2회 통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수업은 유적답사, 봉사활동, 백두대간종주, 생태체험, 직업체험, 전통문화체험의 총 6개의 테마로 구분되며, 학년별로 학교 밖으로 나가 주제에 맞는 장소에 가서 2박3일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의 기본학력 정착 외에도 건강한 심신을 조화시키고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자주적 교육을 실행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체험 분류	해당 학년	체험 테마	비고
인성	1	문학기행	시인, 소설가의 생애 탐구
		유적답사	역사유적지 탐방
		인권 캠프	유네스코 관련 행사 참조
		리더십 캠프	유네스코 관련 행사 참조
		템플 스테이	참선, 구도, 수양
		심성예절 캠프	전통예절, 선비문화, 삼강오륜
		공동체의식 함양 캠프	협동, 협력, 단합, 화합
나눔	2	봉사활동	밥차, 노숙인, 쪽방촌, 독거인
		농촌 체험	농촌봉사, 농촌문화체험
		다문화 체험	노력봉사, 학습봉사
		전통문화 체험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사회단체 활동	소비자단체
		상태환경 체험	자연과 인간의 교감
도전	3	극기 훈련	해병대, 신체수련
		국토순례	행군, 취사, 취침
		진로캠프	꿈 찾기 프로젝트
		백두대간 종주	1박, 2박, 3박
		지리산 둘레길 탐방	코스별, 테마별, 구간별

출처: 한겨레중고등학교 홈페이지.

〈표 1-10〉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통합수업활동

(3) 하늘꿈학교

하늘꿈학교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로, 2003년 개교하였다. 2016년에 교육청으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인가를 받았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을 기반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자유민주 통일과 북한교회 회복을 이루는 일꾼으로 자라나고, 하나님과 민족을 사랑하는 인재로 성장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북한 교회 회복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중학교 과정에 27명, 고등학교 과정에 30명이 재학하여 총 57명이 재적하고 있으며, 19명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2016년까지 졸업생은 151명에 달하며,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10명에서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하늘꿈학교의 재학생들은 14~25세의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며,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과교육 외에도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늘꿈학교의 특성화 교육은 지성, 인성, 신앙, 건강, 남북통합, 진학취업의 6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성교육의 경우,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한 일대일 학습 멘토링, 영어 특성화교육과 독서교육 외에도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과 생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고자 법무법인 광장과 법률교육을, 신한은행과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으로는 예체능의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 청소년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앙교육으로는 예배, 성경교과수업 등을, 건강교육으로 정기 건강검진 및 금연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진학취업을 위해 진로교육과 대학입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남북통합교육은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남과 북을 연결할 다리로 이해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남북한 청소년과 전세계 젊은이들이 교류하고 통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남북청소년 영어통일캠프(EUC)를 진행하고, 지역의 중고등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나꿈학교의 특성화교육은 통일시대에 적합한 리더십 양성과 남과 북의 상호 동질성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제2부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1 ■ 프로그램의 목적과 영역

탈북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학습자의 특성과 배경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먼저 기본원칙과 방향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방법론적으로 이들에게 최적의 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한 한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 자신이 가능하면 스스로 계획·실행·평가의 학습과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고, 가능하면 수업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의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주입식 수업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지향하는 열린 수업모형과 활동지향학습 등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 민주시민교육현장에서도 제한적이지만 기존의 일방적인 강연중심의 교육을 보완하여,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려는 집단적 학습형태인 참여식 교수법이 부각되고 있다(신두철 2008; 유병선 2011).

이러한 교수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지 지식전달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장차 사회와 정치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 사회관계 전망 등을 제공하고 풀어가는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북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개발은 다음의 유의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교수·학습 방법의 기본모형과 더불어 특히 방법적 행위의 요인과 특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을 교육상황(혹은 수업상황)과 여건에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학습자, 즉 탈북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참여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접근방안으로서 활동지향학습과 문제지향학습을 강조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내용분석모형, 미래워크숍(혹은 환상여행) 등의 방법과 기법을 적용한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주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해결 능력
-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 비판의식과 해결능력의 증대
- 가치명료화 및 협력, 함께 살아가기(learning to live together)
-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지식 습득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Thinking and Relationship area)'과 '시민성 영역(Citizenship area)'으로 구체화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가.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⁵⁾

- 의사결정 및 가치명료화
-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토론 학습
- 타인에 대한 신뢰감 회복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모색
- 대인 관계형성에서 신뢰감 형성

나. 시민성 영역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와 민주적 정치제도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이해
- 민주적 토론 방식 및 합리적 의사 결정 절차
-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 글로벌리즘과 세계시민성 함양

5 새로운 사회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토론을 경험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험을 한다. '어떻게 사고하는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현재 남한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는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남한사회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에서 나타나는 주된 가치관은 어떤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사회적 "적응"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적응을 의미한다. 그만큼 적응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중요하며,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의 가장 큰 핵심은 '신뢰감'에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며, 이는 타인의 감정·생각을 공감하는 훈련(Emotion area)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공감적 교류를 통해 얻게 된 '신뢰감'은 문제 상황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에 대처(Coping with Stress area)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예시

아래는 교육목표, 대상, 연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탈북청소년 및 남북한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1) 의사결정 및 가치명료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교육제목	- 탈북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교육목표	- 의사결정과 가치명료화 증진
교육대상	- 탈북청소년 20명
교육일정	- 1일 일(총 8시간(점심식사 포함)/비합숙 - 10:00~18:00
교육방법	- 참여식 토론 및 조별활동, 역할게임
교육내용	- 마음열기 - 민주적 의사결정 - 가치명료화

시간	프로그램	내용
10:00~10:30 (30분)		등록 및 접수/과정안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10:40~11:00 (20분)		마음열기 : 나를 믿어봐
11:00~12:20 (80분)		민주적 의사결정
12:20~13:20 (60분)		점 심 식 사
13:20~16:40 (80분)		가치명료화 하기
16:40~16:50		휴식
16:50~17:50 (60분)		협상게임-소가 필요해

※ 프로그램의 연수시작과 종료시간은 협의 가능.

※ 연수과정 중에 식사가 제공.

2) 탄DEM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교육제목	- 남북한 청소년 탄DEM 민주시민교육 ⁶
교육목표	- 사고 및 대인관계 향상, 의사결정 및 가치명료화 향상, 선거의 이해
교육대상	- 탈북 및 남한 대학생 및 청소년 20명
교육일정	- 1박 2일/합숙
교육방법	- 참여식 토론 및 조별활동, 역할게임
교육내용	- 함께 만나기 - 민주적 의사결정 - 가치명료화 - 협상게임: 소가 필요해 - 법과 우정: 천사와 악마게임 - 기권은 싫어요 - 자유토론과 문화 이해

구분	내용	
첫 날	10:00~10:30 (30분)	등록 및 접수/과정안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개
	10:40~12:10 (90분)	함께 만나기
	12:10~13:10 (60분)	점심식사
	13:10~14:30 (80분)	가치명료화
	14:40~15:00	휴식
	15:00~16:00 (60분)	협상게임: 소가 필요해
	16:10~16:20	휴식
	16:30~17:40 (70분)	법과 우정- 천사와 악마게임
	17:50~19:30 (100분)	저녁 및 휴식
	19:30~21:00 (90분)	자유토론과 상호 이해
21:00~22:00	자유 시간 및 취침	

구분	내용	
둘 째 날	8:00~9:00 (60분)	아침식사
	9:00~11:00 (120분)	- 민주주의와 선거(강의 30분) - 기권은 싫어요(활동 90분)
	11:00~12:30 (90분)	체육활동
	12:30~13:30	점심식사와 귀가

6 독일어 Tandem(탄DEM)은 언어를 교환하며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배우는 협동파트너를 의미함. 이 사업에서는 탈북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이 남북한 간의 다양성과 다문화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천하고, 서로의 경험과 이해, 지식을 공유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고자 함.

3) 체험·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구분	내용		
교육제목	- 남북한 청소년 탄뎀 체험·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교육목표	-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합의와 다수결) 체험과 갈등 해결		
교육대상	- 탈북 및 남한 대학생 및 청소년 20명		
교육일정	- 7주간 (주당 2시간)		
교육방법	- 참여식 토론 및 조별활동, 역할게임		
교육개요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 당사자들 간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 결정 과정에는 참여자들 모두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 기초하여 참여해야 한다.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실제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주별 내용	구분	주제	내용
	1주	더불어 살아가기 (공동체)	
	2주	민주적 의사결정	다수결, 만장일치, 합의방식 차이 학습
	3주	회의준비 및 시작	회의방식, 회의절차 및 규칙 설정
	4주	의제 논의	쟁점 논의, 안건 설정
	5주	쟁점 정리 및 문제 규명	문제 해결 탐색, 절차 적용
	6주	문제 해결 및 합의	그룹 별 모임, 갈등 당사자 대표회의 활용
	7주	발표 및 토론	

3 ■ 사고 및 대인관계 영역 프로그램

3-1. 나를 믿어봐

1) 교육목적

- 타인을 신뢰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감각적으로 느끼도록 하여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 탄뎀 과정에서 남북한 청소년의 신뢰가 상호작용을 높인다는 것을 체험한다.
- 교육 초기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좀 더 친근한 분위기로 바꾼다.

2)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15분 내외

② 준비물

- 없음

(2) 교육구성

단계	주요활동	소요시간
도입	게임 방법 설명	5 분
전개	게임 진행	5 분
마무리	정리	5 분
		총 15 분

3) 진행순서

- ① 두 사람씩 짝을 정하게 한다.
- ②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선다.
- ③ 뒷사람은 오른 발을 뒤로 넉넉하게 물린 다음 왼쪽 무릎을 굽히고 양팔을 가슴 옆에 대어서 앞사람을 받을 자세를 취하게 한다.
- ④ 앞에 선 사람은 시선 방향을 그대로 두고 깨끗하게 선 채로 뒤로 넘어지도록 한다. 이때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 ⑤ 뒷사람은 넘어지는 앞사람의 몸을 손으로 몸을 잘 받도록 한다.
- ⑥ 반대로 반복하게 한다.
- ⑦ 넘어질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 받는 사람은 어땠는지 느낌을 전체적으로 공유한다.

4) 교육성과

- 타인의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통해 신뢰성을 익힌다.
- 신뢰 형성을 통해서 의사소통방법을 익힐 수 있다.

3-2. 의사결정학습⁷

1) 의사결정학습이란?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가지고 ‘빵을 사먹어야 할지, 아니면 기부함에 넣어야 할지’를 비롯해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 것인지 등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7 신두철·허영식(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Ⅱ: 방법론』 참조.

내리는가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의 의사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질이 시민들의 의사결정 질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민주적인 절차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의사결정능력을 키우는 것은 시민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의사결정 학습은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함께 합당한 가치 판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사결정은 진공상태에서, 마음가는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며 의지와 결단력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알아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과 함께 합당한 가치판단 능력까지도 필요하다. 의사결정은 종합적인 사고와 가치판단의 총체이다. 따라서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력과 가치판단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연습함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중요한 사회적인 쟁점과 이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사결정 학습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 자신감과 함께 자율성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사람은 잠시 동안은 편하지만 수동적인 존재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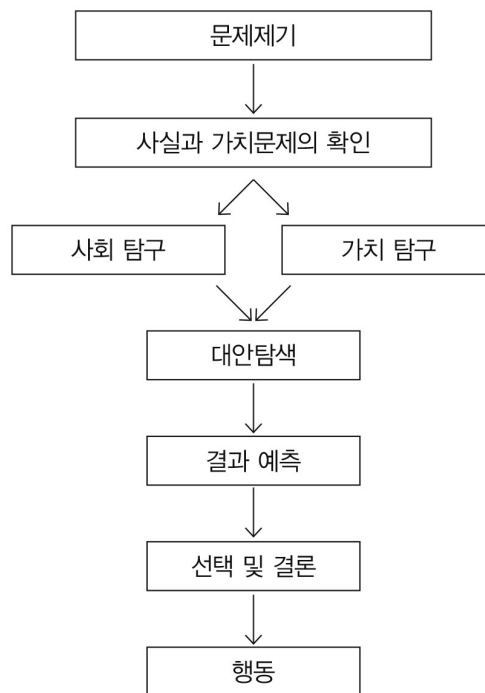
2) 의사결정학습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결정모형은 사회과학적 탐구과정과 가치탐구과정의 두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실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회과학탐구과정을 둔다. 다른 한편으로 의사결정은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가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탐구과정을 둔다. बैंक्स(Banks), 울레버와 스코트(Woolever & Scott)가 제시한 의사결정의 모형에 따르면 대체로 의사결정모형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차경수, 2008: 186).

단계	내용
문제제기	문제를 명확히 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두발 자율화에 관한 문제라면, 이 문제가 제기된 배경, 핵심적인 쟁점, 이 문제에 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실과 가치문제의 확인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이 쟁점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을 사실에 관련된 문제,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두발 자율화에 관해서 두발 자율화가 학생들의 탈선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에 관한 문제라면, 학생의 인권보호와 공동체 질서 유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은 가치에 관한 문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실과 가치의 문제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계	내용
사회 탐구에 의한 지식 획득	사실에 관한 문제는 사회과학 탐구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는 관련되는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과학 관련 개념과 일반화, 이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가치탐구에 의한 가치분석	가치에 관한 문제는 가치 분석을 통해서 해결한다. 가치분석 시 자신이 선택할 가치의 논리적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가치가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가치를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한 것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	이상의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의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장단점을 비교한다.
선택 및 결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행동	선택한 대안을 실천한다.

〈표 2-1〉 의사결정학습 단계 및 내용



출처: 차경수(2008: 187)

〈그림 1-1〉 의사결정수업 모형

3) 실천 및 적용 사례

의사결정모형의 핵심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선택의 이유가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참인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가치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화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모형의 단계를 정확하게 적용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서 의사결정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업 대상 학년 및 주제

대상 : 탈북청소년
학습 주제 :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단원 : V.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

(2) 수업 계획 및 구성

가. 학습 목표

1.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
2.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익힌다.

나. 수업 개요

단계		내용
도입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
전개 (사례 탐구1)	문제제기	냉장고 선택의 문제
	사실과 가치의 구분	사실문제인가, 가치문제인가?
	사회탐구	매물비용 개념과 비용 분석을 사용하여 사회탐구
	대안 탐색 및 결과예측	각 대안의 결과에 대해 예측 해보기
	선택 및 결론	선택해보기
	반성 평가	장래의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 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과거의 투자에 얽매어 손해 볼 줄 알면서도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언제나 현 시점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다.
전개 (사례 탐구2)	문제제기	주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문제와 가치문제의 구분	관련된 문제를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로 구분
	사회탐구	스마트폰은 버려진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것인가?
	가치탐구	관련된 가치는 무엇인가?
	대안 탐색 및 결과예측	각 대안별 결과 예측
	선택 및 결론	최종 선택 및 정당화
정리	과제제시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배운 의사결정절차를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려 보자.

다. 수업 단계별 활동

① 도입 : 학습 주제 제시 :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② 전개 1

(가) 문제제기 - 다음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가 직면한 문제이다.

1호점을 개점한 지도 벌써 삼 년이 되어 간다. 개점할 당시에는 돈도 없고 그저 싸다는 이유만으로 냉장고를 골랐다. 그러나 눈부신 기술 혁신으로 삼 년 전과 똑같은 가격으로 막대한 절전 효과가 있는 신형 냉장고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 냉장고의 신형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5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다른 가전회사인 △△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냉장고를 350만원에 팔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냉장고를 사려면 ○○전기에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김씨가 의사 결정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나) 사실문제와 가치문제 확인

▷ 활동 1. 김씨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문제인가, 가치문제인가?

(다) 사회탐구

▷ 활동 2. 김씨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 개념 정의 : 합리적인 선택이란?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것

㉡ 비용 계산 : 각 냉장고 구입비용 계산

구분	가격	계약금	앞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지출총액
○○ 전기	500만원	100만원		
△△ 전기	350만원			

→ 관련 사회과학 개념 제시 : 매몰비용(Sunk Cost)

과거에 지출한 투자액 중 그 이후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부분을 말한다. 매몰비용은 이미 사용된 비용이기 때문에 장래의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 비용계산에서 매몰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 비용 분석 결과: 어떤 냉장고의 구입비용이 더 적은가?

(라) 대안 탐색 및 결과 예측

▷ 활동 3.

대안	결과 예측
○○ 전기	
△△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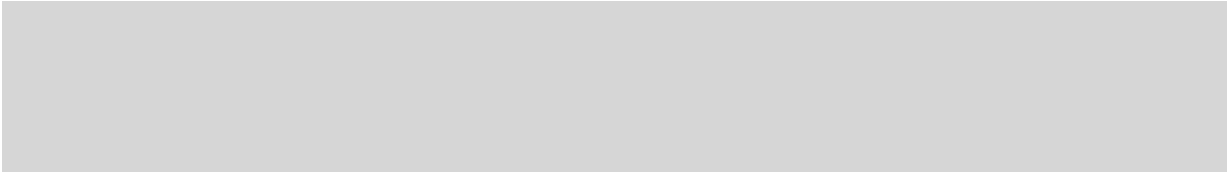
(마) 선택 및 결론 :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 활동 4.

최종선택	
------	--

(㉞) 반성 및 평가

▷ 활동 5. 위 사례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



③ 전개 2

(㉟) 문제제기

최근에 당신은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제일 처음 학교에 도착하였다. 당신이 특별활동실을 지나 교실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특별활동실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 스마트폰을 켜보니 잘 작동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인기 있는 동영상도 담겨 있다. 주위를 둘러본 순간 교실에는 당신 밖에 없었고 당신이 이 스마트폰을 챙길지 여부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 여러분이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㊱) 사실문제와 가치문제 확인

1. 이 스마트폰은 누군가 고의가 버린 것일까?, 잃어버린 것일까?
2. 스마트폰을 내가 가져야 할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할까?

활동 1. 위 문제를 사실문제와 가치문제로 구분해보자.

(㊲) 사회탐구

활동 2. 다음 문제를 탐구해보자.

- ㉠ 문제제기: 고의로 버린 것일까, 잃어버린 것일까?
- ㉡ 관련 사실 탐구: 다음 사실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을까?

- 최신형이다.
- 잘 작동하고 있다.
- 최근 인기 동영상이 담겨 있다.

㉢ 결론:

(㊳) 가치탐구

활동 3. 다음 문제를 탐구해보자.

- ㉠ 문제제기: 스마트폰을 가져도 되는가?, 그냥 방치해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해야 하는가?, 어느 것이 옳은가?
- ㉡ 관련 가치 탐구
 - 소유권: 스마트폰은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가지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 정직: 스마트폰을 가지는 것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속이는 것은 아닌가?

→ 신뢰:

→ 그 밖에 관련된 가치는?

㉔ 어떤 가치에 따라 행위 해야 하는가?

→ 여러분이 선택한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이며, 그 가치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㉕ 대안 탐색 및 결과 예측

활동 4. 탐구를 바탕으로 대안을 탐색하고 결과를 예측해보자.

대안	결과 예측

㉖ 선택 및 결론

선택 근거	

활동 5. 최종 선택과 그 이유를 적어보자.

㉗ 반성 및 평가

활동 6. 의사결정절차를 우리가 겪는 현실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④ 정리

㉘ 과제제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내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배운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발표해보자.

3-3. 가치명료화 학습⁸

1) 가치명료화 학습이란?

‘가치명료화’ 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보통명사로서 사실과 가치 사이의 혼동으로부터 가치를 명료하게 분석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래쓰(L. Rath), 하민(M. Harmin), 사이몬(S. Simon)이 그들의 저서 『value and teaching』에서 제시한 의사결정 모형의 한 가지로서 가치명료화를 말한다. 후자는 가치교육 방법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모형의 하나이며 본 글에서 취급하는 가치명료화 학습을 말한다.

가치명료화 모형의 첫 번째 특징은 가치주입에 대한 명백한 반대 선언이다. 다시 말해서, 가치는 결코 주입(注入)으로 부터 나올 수 없다. 오늘날 명백하게 합의된 도덕원리나 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정 가치나 덕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며 그 대신 ‘가치화(valuing) 과정’을 가르쳐

8 신두철·허영식(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Ⅱ: 방법론』 참조.

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치주입이란 암묵적으로 가치의 절대주의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결정된 가치나 신념을 학생에게 집어넣는 것, 곧 교화(教化, indoctrination)를 가리킨다. 교화는 어원적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진 ‘doctrina’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오늘날 진리가 아닌 허위를 가르치는 것이나 진리를 가르치되 그것이 진리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수용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치주입은 합의되지 않은 성인들의 가치를 강요하며,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의 시민교육에서 중요한 토대를 이룬 1976년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도 교화란 학생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유지를 위해서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를 교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피터즈(R. Peters)나 교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콜버그(L. Kohlberg) 같은 학자들도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존엄, 자유, 평등,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기본가치들의 교화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Peters, 1988: 351).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교화는 민주사회의 기본가치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성숙 아동이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교화는 사회의 기본가치가 아닌 교사 개인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경우와 학생의 자율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주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가치 명료화 모형의 두 번째 특징은 가치를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이 모형은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issues) 등 모든 가치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 곧 가치화 과정은 개별적 과정이므로 집단적 합의를 통해서 가치가 형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래쓰는 가치란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각기 나름의 관점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가치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Rath, 1994: 54). 이들이 ‘가치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가치를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그 가치가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래쓰의 모형은 인간의 사고를 토대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자율성 강조의 모형이다.

가치 명료화 모형의 세 번째 특징은 명료화(clarification)라는 분석 작업을 최초로 가치탐구 교육에 도입한 점이다. 사실과 가치가 서로 뒤엉킨 문제 상황에서 명료화 작업을 통해서 애매모호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고, 가치와 이에 대립하는 또 다른 가치를 구분하고, 가치판단(의사결정)과 실천을 구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 모형의 우수한 점이다. 곧 용어-사실-가치-실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서는 가치판단과 이의 실천의 일관성을 집요하게 추구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명료화 작업을 숙달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명료화 응답을 사용하는 대화 전략, 가치지(value sheet)를 활용한 쓰기 전략, 토론 전략, 결과 인식 확대 전략 등이 대표적인 방법론이다.

명료화 응답을 활용하는 대화 전략은 학생이 표현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학생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곧 교사의 질문이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마음에 의문을 불러 일으켜서 그들의 생활들, 행동들, 생각들을 검토해 보도록 부드럽게 자극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방법은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보통 한 번에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가치지 쓰기 전략은 주로 가치지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극을 주는 지문과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가치지를 통해 진행된다. 학생들은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관점과 선택을 써보고 이에 따른 행동 수행을 요구받는다. 명료화 응답이 한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가치지는 전체 학생 혹은 토론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 명료화 응답이 특정 학생의 특정한 표현을 다룬다면 가치지는 대다수 학생들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취급한다. 문학작품의 한 부분, 사건기사, 영화, 만화, 텔레비전 쇼 등이 지문으로 제시될 수 있다. 쓰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때론 조용하면서도 힘든 사고를 거침으로써 좋은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 전략은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이며 서로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관용과 경청의 태도를 배우는 전략이다. 대집단 토론에서는 몇몇 말하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토론을 독점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 계획이 요구된다. 풍요롭고 반성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제를 잘 선택한다. 둘째, 발언하기 전에 생각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 셋째, 학생들 모두가 골고루 토론에 참여하도록 토론을 구조화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나눠 토론하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이 토론에서 뭔가의 배움을 도출하도록 도와야 한다.

결과인식 확대 전략이란 학생들이 그들의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결과를 보다 넓게 멀리 바라보고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예상해 봄으로써 더욱 지성적으로 우리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성립된다.

이러한 전략들의 숙달 위에서 그들은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명료화 7단계를 소개한다. 7단계 과정은 가치자체의 본질보다는 ‘가치화의 과정’ 곧 ‘어떻게 해서 가치가 형성되는가?’ 하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Rath, 1994: 45-8).

* 선택(choosing)

- ① 자유로운 선택: 가치가 개인에 의해 정말로 ‘가치’가 되려면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한다.
- ② 여러 대안으로부터 선택: 대안이 둘 이상 있어야 선택은 비로소 가치가 될 수 있다.
- ③ 숙고 후 선택: 각 대안들의 결과에 대해 사려 깊게 검토한 후 선택한다. 충동적이거나 생각이 없는 선택은 가치가 아니다.

* 존중(prizing)

- ④ 선택의 존중: 자기의 선택에 대해 만족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라고 할 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존경한다. 사랑스럽게 여긴다. 행복해 한다.
- ⑤ 선택의 확인: 자기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타인에게 분명하고도 자신있게 말한다. 각자

는 그의 가치를 기꺼이 공개할 수 있다. 필요할 때는 그의 가치를 방어할 수 있다.

*** 실천(acting)**

- ⑥ 선택에 따른 실천: 선택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가치가 실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가치일 수 없다.
- ⑦ 실천의 반복과 일관성: 자신의 행동을 반복 실천함으로써 삶의 방식으로서 일관성을 가진다. 가치란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삶의 유형을 형성한다. 가치가 행동으로 단 한번만 옮겨진 이후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어떤 것을 가치라고 명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7단계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지만 가치를 명료화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 속에 포함된 용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실과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모호한 가치를 뚜렷하게 밝힘으로써,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가치들을 확연히 드러내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를 더욱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가치를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 모형은 상대주의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형에서 명료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적 가치이지 사회적 도덕적 가치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형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좋고·싫음에 대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적절하다(Hersh, 1989: 19).

래쓰와 그의 동료들은 가치명료화 모형이 윤리적 상대주의임을 인정하면서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하나의 진정한 종교, 하나의 진정한 도덕성, 하나의 진정한 정치제도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Rath, 1994: 머리말). 이 모형의 상대주의에 대해 콜버그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가치명료화는 가치에 있어서 유일한 정답은 없다는 원칙을 함축하고 있다. 만일, 이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도덕에는 옳은 답이 없다는 것을 믿는 상대주의자들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커닝을 하다가 들킨 학생은 교사의 가치와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가치위계에 의하면 커닝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잘못된 일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Fraenkel, 1994: 72 재인용).

실제로 래쓰는 “시험을 볼 때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컨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상황에 어떠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의 정직과 컨닝의 문제는 사회적 도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개인적 가치로 취급하려 함에 따라 생기는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가치명료화 모형의 상대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대략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이 모형에 대한 적절한 수정 보완작업을 취하는 경우이며, 둘째, 가치의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한 가치분석 모형의 제시이며, 셋째, 건전한 상식에 호소하는 의사결정 정당화 방법에 대한 고려이다.

첫 번째로 우리는 키센바움의 제안한 수정된 가치명료화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키센바움은 이 모형의 7단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해서 제시한다(Kirschenbaum, 1973: 105-6).

*** 느낌(feeling)**

- ① 각 개인의 내적 경험에 대해 마음을 열기
- ② 각 개인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 사고(thinking)**

- 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 ②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 ③ 창조적으로 사고하기

*** 의사소통(communicating)**

- ①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 ② 감정이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하기
- ③ 갈등을 해결하기

*** 선택(choosing)**

- ① 대안들로 부터 예상되는 결과의 장·단점을 고려하기
- ② 자유롭게 선택하기

*** 실천(acting)**

- ①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천하기
- ② 능숙하게 행위하기

키센바움의 수정 보완된 가치명료화 모형의 특징은 ‘느낌’이라는 감정의 단계와 ‘의사소통’이라는 단계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래쓰의 가치명료화 모형에서 감정의 역할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만족해 하고 자부심을 갖고 타인에게 확인시키는 차원의 감정이다. 그러나 키센바움의 수정 보완된 모형에서 감정의 역할은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곧 나를 위한 느낌·감정이 아니라 남을 위한 느낌·감정이다.

다시 말하자면 느낌과 의사소통 단계의 보완을 통해서 그는 가치명료화 모형이 지니는 차가움과 상대주의의 약점을 극복하여 보편주의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교화의 절대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제시된 가치명료화 모형의 상대주의를 다시금 극복하려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가치분석 모형(↳가치분석 모형 학습)에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으나 콤즈(J. Coombs)의 가치분석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 왜냐하면 그의 모형은 메트카프(L. Metcalf)가 책임 감수한 미국사회과교육협회(NCSS)의 1971년도 공식문서에 소개된 모형으로서 미국사회과교육협회의 인정을 받은 모형이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가치분석 작업을 철저히 진행시킨 의사결정 모형이다. 콤즈의 가치분석 모형은 새로운 반증 사례 검사, 포섭(subsumption) 검사, 역할교환 검사, 보편화 결과 검사와 같은 점검을 통해서 보편주의를 추구하려 한다.

세 번째의 상식에 호소하는 정당화 방법이란 필자의 주장으로서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이 건전한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사소통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당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말 사전을 보면 상식(常識)이란 ‘일반인이 보통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보통의 지식이나 판단력’을 말한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상식(common sense)이란 인간의 자연적 지성, 건전한 실천적인 감각, 공동체에 따른 감각, 느낌, 혹은 판단, 제일진리들을 아는 능력(faculty of primary truths)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정당화(justification)란 자신의 의사결정이 옳다는 것 혹은 적절하다는 것을 만인에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식에 의한 정당화란 의사결정의 근거를 상식에 둔다는 것 혹은 의사결정이 상식수준에서 용납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은 의사소통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여 7단계 가치명료화 모형을 5단계 가치명료화 모형으로 재구성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문제 확인 단계

- 무엇이 문제인가? 를 명확히 하는 단계이다.
- 상황에 관련된 용어 및 개념을 명확히 한다.
- 문제 상황에 포함된 사실과 가치를 구별한다.

② 여러 대안을 자유롭게 생각하는 단계

③ 각 대안의 예상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

- 결과를 장·단점으로 나누어 예상한다.

④ 의사소통 단계

- 타인과의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견해를 경청함으로써 상식적인 견해를 확인한다.
- 자기 입장을 수정 조정할 수 있다.

⑤ 최종 대안 선택 및 이의 정당화 단계

- 최종 대안을 선택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2) 실천 및 적용 사례

가치명료화 모형을 통한 의사결정을 능숙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자 방법론으로서 몇 가지 전략에 대한 실천 및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대화 전략

교사: 우리나라 정치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학생: 많은 편이죠.

교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몇 가지 선택했지?

학생: 4과목이요.

교사: 정치 과목은 당연히 들어갔겠지?

학생: 아닌데요.

교사: 뭐?

(정치에 관심이 많다면서 정치과목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의 말과 실천이 일관성을 갖도록 스스로 생각해 보게 지도한다.)

(2) 쓰기 전략

가. 개념분석과 관련한 쓰기 전략

① 다음 물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간결하게 적어 보세요.

21세기 디지털 사회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창의성이다. 흔히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나 자기만의 개성은 튀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으로 표출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곧 창의적 사고와 옷차림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양복을 입으면 머리가 굳어지고 칼로 북북 찢은 청바지를 입는다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튀다는 것은 남과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튀는 복장이 창의성을 촉발시킨다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양복을 입고 있거나 명동 한 복판에서 나뭇가지 속옷을 입기만 하면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라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창의성의 촉발은 내부에서 일어난다. 돌출행동과 튀는 외모로 한 몫을 하겠다는 것은 '창의성을 외향적 요소에서 찾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코뚜레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에 장식품을 거는 피어싱(piercing), 도발적인 색채를 새겨 넣는 문신 등은 창의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창의성이란 격렬히 소용돌이치는 내부적 아이디어 입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하겠다.

출처: 신문선, 『히딩크 리더십』, pp. 218

1. 창의성에 대한 저자의 관점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쓰시오.
2. 창의성에 대한 자신의 정의(定義, definition)를 간략히 적으시오.
3.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필요하면 예를 들어 제시하시오.

② 학생 답안 예시

예시 1

- 저자의 관점에 찬성하는 견해: 튀는 복장이나 피어싱, 문신 등은 외향적으로 남과 다르게 꾸미고 싶은 욕구이지 창의성은 아니다.
- 저자의 관점에 반대하는 견해: 내부의 아이디어가 창의성이 될 수 있지만 외향적인 요소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시 2

- 창의성이란 진지한 내면적 고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서 기존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다.
- 자신의 ‘모든 앎’ 즉 지식을 종합한 뒤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기묘한 상상이다.
- 어떤 것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예시 3

-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의 당연한 것들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감성을 길러야 한다. 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를 써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남과 다른 안목을 기를 수 있고, 언어의 조탁을 거치면서 응용능력까지 증진시켜 창의성 증진에 좋다.
-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기의 생각이 남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경우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남들 생각에 자신을 맞추는 뿐이다.

나. 미담(美談) 분석과 관련한 쓰기 전략

① 어려운 환자 위해 1억원 기부한 ‘아귀찜 할머니’ 이야기

“나도 아파 보니... 가난한 환자 마음 알겠어.”

“이기 내 돈이고. 죽기 전에 본래 자리에 갖다 놓을 라 카는 깰데...”라고 말하면서 평생 모은 재산 1억 원을 서울 ○○병원에 전달한 할머니는 ‘어려운 일 하셨다’는 말에 전화기 너머로 손사래를 쳤다. 경남 진해시 이동의 아귀찜(속칭 아구찜) 전문식당 ‘할매 아구찜’ 주인 ○○○(67세)씨는 31일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알게 됐다.”며 “불쌍한 환자들을 돕기 위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비행기 조종사처럼 특이한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남동생 셋을 둔 그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초등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공장도 회사도 없던 시절, 남의 집에 들어가 식모살이를 했다. 그때 나이 스물 넷.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다. 그러나 3년 뒤 결혼을 하면서 식모살이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길거리 행상으로 나섰다.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동네 쇠기름 공장에 취직 했다.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었다.

1989년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추락으로 척추와 어깨를 다쳤다. 수술 후에도 5년 동안이나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다. 4년 동안 결근 한번 없던 공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겨울 옷 한 벌, 여름 옷 한 벌로 지낼 만큼 검소한 생활을 한 탓에 그간 모은 돈도 좀 있는 터, 아귀찜 식당을 차렸다.

15년 동안 한 우물만 파면서 꽤 유명해졌다. 명절이면 음식을 싸 들고 사회 복지시설을 찾았다.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좀 더 큰일을 찾던 그는 가난한 환자들이 떠올랐다. 때 마침 서울 ○○병원의 무료진료 활동 소식을 접하자 주저 없이 재산을 내놓았다. 최근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김씨는 “이슬 피할 집하고 손님만 있으면 된다.”며 밝게 웃었다.

출처: 한국일보, 2007. 5. 31.

1. ○○○씨가 남을 돕게 된 직접적인 동기(마음)는 무엇인가?
2. ○○○씨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곧 소유권에 대한 관점은 무엇인가?
3. 현재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시오.

② 학생 답안 예시

1.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의 고통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2. 재산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베풀 수 있는 힘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려면 자신의 소유가 있어야 하는데 ○○○씨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3. 아직 학생이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힘은 크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사소한 것들 곧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야 할 것 같다. 봉사활동 같은 것들 말이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 말과 실천의 일관성과 관련한 쓰기 전략

설문지

다음 내용을 읽고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알고자 합니다. 성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 나는 환경보전에
 - ① 관심이 많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관심이 적은 편이다.
 2. 나는 규칙을
 - ① 잘 지키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안 지키는 편이다.
 3. 나는
 - ① 정직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정직하지 않은 편이다.
-
- (1) 시험시간 중에 감독 선생님이 오랫동안 교실을 비우면, 나는
 - ① 컨닝을 할 수 있다. ②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 ③ 컨닝을 하지 않겠다.
 - (2)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나는 신호를
 - ① 잘 지키는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자주 안 지키는 편이다.
 - (3) 휴지나 쓰레기를 버릴 때, 나는
 - ① 아무데나 버린다. ② 편하게 행동한다. ③ 휴지통에 버린다.
 - (4) 청소시간에 나는
 - ① 매번 착실히 청소한다. ② 가끔 청소한다. ③ 주로 논다.
 - (5)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거스름돈이 많을 때, 나는
 - ① 주인에게 돌려준다. ② 닦쳐봐야 알겠다. ③ 그냥 가진다.
 - (6) 가게에서 받은 비닐봉지나 신문에 끼여 있는 광고지를 볼 때, 나는
 - ① 재활용한다. ② 별 생각이 없다. ③ 쓰레기통에 버린다.
 - (7) 학교에서 명찰을, 나는
 - ① 잘 단다. ② 가끔 단다. ③ 잘 안 단다.
 - (8) 내가 실제 맞은 성적보다 시험 성적이 턱없이 좋게 나올 때, 나는
 - ① 선생님께 이야기한다. ② 잘 모르겠다. ③ 그냥 놔둔다.
 - (9)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나는

- ① 노력한다. ② 별 생각이 없다. ③ 편리하게 잘 사용한다.
- (10)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라는 말에 대해, 나는
 - ① 그렇다고 인정한다. ② 가끔 거짓말을 한다. ③ 정직하면 손해 본다.
- (11) 학교에서 주변근무를 할 때, 나는
 - ① 일찍 등교한다. ② 평소처럼 등교한다. ③ 주변학생임을 자주 잊는다.
- (12)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나는
 - ① 남긴 음식이 거의 없다. ② 때에 따라 다르다. ③ 자주 음식을 남긴다.

(위 내용은 환경보전, 정직, 준법의식이라는 가치들에 대한 문항들을 임의로 섞어 배열한 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실제 행동간 차이를 살펴보는 문항들이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말과 실천의 일관성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3) 토론 전략

- ① 저자의 ‘깨진 유리창’ 법칙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십시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는가? 여기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에 의해 실행된 매우 흥미 있는 실험이 그것이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1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다만 그 중 한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 상태로 놓았다.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인데,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 놓고 차의 유리창을 깨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 파괴가 일어났고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던 것이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파괴 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 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다.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 시의 치안은 형편이 없었다. 미국의 라 토가스 대학의 젤링 교수는 깨진 유리창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 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히 지우는 것을 제안했다. 낙서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창문이 깨져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젤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히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서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물론 당연한 반응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서도 문제지만, 우선은 그런 작은 문제보다는 큰 문제인 흉악한 중범죄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간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단행했다. 지하철의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되어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이 수행되었던 것이다.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이나 지난, 1998년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다.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부터는 중 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 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던 것이다.

그 후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한 것이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것이 그 주변 범죄율을 감소시킨 것처럼 한 가지가 변하면 그 주변까지 변화가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보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출처: 마쓰다 미쓰히로, 『청소력』, pp. 29-35

② 저자의 주장에 동의

환경이란 매우 중요하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 가면 왠지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더럽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반대로 더럽고 불결한 곳에 가면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와 같이 환경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꾸는 힘을 가졌다.

③ 저자의 주장에 반대

작은 범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큰 범죄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소매치기나 오물투기 같은 경범죄가 아닌 살인·강도·방화 등 중범죄는 낙서를 지우고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 했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

(4) 의사결정 사례

가. 문제 상황: 아빠와 친해지기

① 학생 답안 사례 1

* 선택

- ① 자유로운 선택 :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 ② 여러 대안으로부터 선택: 아빠에게 안마하고 천 원씩 받기. 아빠의 금연을 도와 주기. 한 달에 한 번씩 여행하기.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하기.
- ③ 숙고 후 선택: 각 대안의 결과를 예상해볼 때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하기’가 가장 좋다.

* 존중

- ④ 선택의 존중: 자기의 선택에 대해 만족한다.
- ⑤ 선택의 확인: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친구들도 좋다고 했다.

* 실천

- ⑥ 선택에 따른 실천: 오늘부터 하겠다.
- ⑦ 실천의 반복과 일관성: 매주 한 번은 하겠다.

나. 문제 상황: 성적 올리기

② 학생 답안 사례 2

* 선택

- ① 자유로운 선택 :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 ② 여러 대안으로부터 선택: 잠을 줄여 공부한다. 학원을 다닌다. 집에서 열심히 한다.
- ③ 숙고 후 선택: 각 대안의 결과를 예상해본다. 잠을 줄이면 수업시간에 졸린다. 학원을 다니면 돈이 든다. 집에서는 능률이 안 오른다. 학원을 다니면 돈이 들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학원 다니기를 선택한다.

* 존중

- ④ 선택의 존중: 자기의 선택에 대해 만족한다.
- ⑤ 선택의 확인: 부모님도 허락하셨다.

* 실천

- ⑥ 선택에 따른 실천: 학원에 등록을 하겠다.
- ⑦ 실천의 반복과 일관성: 매일 매일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겠다.

3-4. 탄뎀 함께 만나기

1) 교육목표

남북한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작업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탐색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패턴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2) 프로그램 내용 및 진행

	단계	프로그램 내용	중점영역	시간
프로그램	도입	동영상 시청 및 나의 기분 나누기	T	10
		지금, 여기에서 감정 알아차림.	E	10
		팀 게임하기	R	20
	전개	공동작품 만들기	R T	40
	마무리	GRIP카드 작업: 카드 선물하기	R	20
		전체 소감 나누기		10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크레파스 GRIP카드, GRIP카드 기록지 제기 알아차림-접촉 연습지(5단계)			
고려사항	영상에 대해서 모둠원들이 이야기를 원하면 이야기를 나누지만, 모둠원들이 다루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고 기분상태나 욕구를 표현하는 몸짓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너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거나, 방관하는 집단원들을 관찰하여 이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도록 돕는다.			

* T: 사고 및 가치관영역(Thinking and Value area), E: 정서영역(Emotion area)
R: 대인관계영역(Relationship area).

■ 도입단계

동영상 시청 및 나의 기분 나누기

◎ 목적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짧지만 집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 사회의 일면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 주간의 근황이나 기분상태를 전함으로써 스스로 한 주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한다.

◎ 진행순서

- 1) 참가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영상을 틀어놓는다.
- 2) 참가자들이 한 번 정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 보이지 않을 경우 반복해서 틀어놓는다.
- 3) 참가자들이 모이면, 영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형식에 맞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눈다.

♣ 지시문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작 전에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한 주일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 고려해야할 점

- 1) 영상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원하면 이야기를 나누지만, 참가자들이 다루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 프로그램 시행 사례

☞ 참가자 반응

뭐 똑같습니다, 잘 지내고요. / 축구를 해서 피곤합니다. / 피곤해서 자고 싶었는데, 선생님들께서 토요일마다 여기에 우리 때문에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 잘 해야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여기에서 감정 알아차림

◎ 목적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자신의 신체나 감정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것과 더불어 타인의 움직임이나 표정 등 기분상태가 반영되는 신체변화 등에 초점을 둔다.

◎ 준비물

알아차림-접촉 연습지[WS 1]

◎ 진행순서

- 1) 음악을 들려 준 후, 알아차려지는 것들을 알아차림-접촉 연습지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 지시문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상태를 느껴볼까요? 말은 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차려보세요. 몸 상태는 어떤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감정은 어떤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특히,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번 알아차려봅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이 느껴지는 지도 알아차려봅시다.

◎ 고려해야할 점

- 1)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고 기분상태나 욕구를 표현하는 몸짓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다.

팀별 제기차기놀이

◎ 목적

참가자들 간에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시킨다.

◎ 준비물

제기

◎ 진행순서

- 1) 가위, 바위, 보로 팀을 나눈다.
- 2) 팀별 제기차기를 한다. 팀별로 한명씩 돌아가면서 제기를 차서, 합이 많은 팀이 이긴다.

♣ 지시문

오늘은 제기차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기차기는 남북한 모두가 좋아하는 민속놀이죠? 어릴 때 저도 많이 하고 놀았었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시합을 해볼까 합니다. 더 많이 제기를 찬 집단이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진 쪽은 앞쪽에 뒤를 둔 채로 서 있고, 이긴 집단이 제기를 던져 맞추는 것으로 합니다.

◎ 고려해야할 점

- 1) 팀을 나눌 때, 남북한 학생들이 혼성팀을 이루도록 나눈다.
- 2) 인원이 적을 경우 2~3회 실시한다.

◎ 프로그램 시행 사례

☞ 참가자 반응

게임이라는 소재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좀 더 제기를 많이 차기 위해 운동화를 빌려주기도 하고, 같은 팀의 실수를 보듬어 주기도 하였다. 제기를 잘 차지 못하는 참가자는 자신 없어 쭈뼛거리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신감을 갖도록 같은 참가자들이 격려해주기도 하였고, 자신 만만해 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 전개단계

공동작품 만들기

◎ 목적

집단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다. 집단의 역동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세심히 파악해야한다.

◎ 준비물

전지, 크레파스, 색연필, 음악

◎ 진행순서

- 1) 팀별로 한 장의 전지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목적을 설명한다.

♣ 지시문

오늘은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고, 좀 전에 게임을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한 조가 되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둘러보며) 혹시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웃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과제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심지어는 음식점에 다 함께 가서 음식을 고를 때조차도, 우리는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에 큰 종이가 보이시죠? 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단 종이가 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팀별로 의논을 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림의 주제는 “함께”입니다. 어떤 모습의 무엇을 그릴지는 역시 함께 정하셔서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 2) 팀이 한 가지 주제로 단 한 장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견이 대립되는 과정이

일어나면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야 함을 강조한다.

- 3) 그림을 다 그린 후 작품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 나눔 시간에는, 대표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전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상대팀은 설명을 잘 듣고 질문을 할 기회를 얻는다.
- 4) 서로의 작품에 대해 피드백을 하도록 한다.

◎ 기법 설명

공동작품을 만드는 것은 팀원 개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또한 공동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개인의 행동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후속 프로그램에서 이를 다루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고려해야할 점

- 1) 리더들은 집단의 역동을 세심히 파악하면서 의견충돌 시 중재를 통해 다시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 2) 참가자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하는데, 너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거나, 너무 방관하여 있는 참가자들을 관찰하여 이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도록 돕는다.

◎ 프로그램 시행 사례

☞ 참가자 반응

목소리가 큰 몇몇 분들과 말없이 그냥 가만히 따르시는 분들로 구분되었다. 한반도를 그리자는 분도 있었고, 제기차기 모습을 그리자는 분, 또 다 같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자는 분도 있었다. 세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제기차기 모습을 그리자는 의견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리자는 의견이 팽팽히 상충되었는데, 다른 집단원들의 의견을 물어도 마찬가지로 팽팽하였다. 이에 대해 왜 이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지 목소리를 낮추어 설득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의견이 조율되어 집단에서 함께 하였던 제기차기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자신의 의견이 선택되지 못하자 다소 시무룩한 모습이었으나, 투덜대면서도 그림을 그리는 데에 잘 참여하였다.

GRIP카드 작업 : 카드 선물하기

◎ 목적

집단원 간에 관심 및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 준비물

GRIP카드, GRIP카드 기록지

◎ 진행순서

- 1) 각각 5장씩 나누어 주고, 서로에게 카드를 선물하도록 한다.

♣ 지시문

지난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카드는 함께 작업을 하면서 집단에 계신 분들에게서 좋은 마음자세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칭찬하는 의미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난하시거나,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격려하고 칭찬하는 용도로만 카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를 주실 때는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에서 이러한 마음자세를 발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분부터 주시고 싶으신가요?

◎ 고려해야할 점

- 1) 카드를 받지 못한 참가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카드를 받은 참가자가 받은 카드 중 카드를 받지 못한 참가자에게 맞는 카드를 선물하도록 한다. 잘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리더가 직접 카드를 선물함으로 모델링을 한다.
- 2) 공동작업 이후에 진행되는 카드 선물하기는, 서로를 공격하거나 혼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선물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프로그램 시행 사례

☞ 참가자 반응

자기주장이 안 되었는데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는 00님의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 00님이 주장을 양보하시는 걸 보면서 '놓음'이 생각났습니다. / 00님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계속 @@님한테 장난치고 웃으셔서 '함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 00님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셨었는데, 열심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드립니다.

■ 마무리단계 : 전체 소감 나누기

◎ 목적

집단원의 변화에 대해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으로 회기에서 얻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음 회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다.

◎ 준비물

없음

◎ 진행순서

- 1)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낌이나 소감을 함께 나눈다.

♣ 지시문

이제 어느덧 오늘이 활동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했던 점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작업을 하면서 어떠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등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Worksheet 1◇

알아차림-접촉 연습지[WS 1-1]

1. 나는 지금 _____을 보고 있다.
2. 나는 지금 _____가 들린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3. 나는 지금 몸의 _____느낌을 알아차린다.
4. 나는 지금 _____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5. 나는 지금 _____감정(느낌)이 드는 것을 알아차린다.
6. 나는 지금 _____기분을 느낀다.
7. 나는 지금 _____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8. 나는 지금 (이름) _____가 하는 것을 본다.
9. 나는 지금 (이름) _____가 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 GRIP카드란?

GRIP이란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즉,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GRIP카드(정식명칭: GR-1 마음자세 카드, GR-2 그림상황 카드)를 활용한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을 말한다. GRIP은 성신여자대학교 김정규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계슈탈트포럼에서 임상 및 상담 전문가들이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카드, 놀이판 등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상하, 2009).

GRIP의 중심을 이루는 GR-1(마음자세 카드)은 쉽게 ‘GRIP카드’로도 불린다. GRIP카드는 “언어”를 읽고 전달함으로써 개념이 마음속에 새겨져 사고와 정서가 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기본생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발은 주로 “언어”를 사용한 대인관계 향상의 촉진역할을 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GRIP카드는 ‘공감’, ‘경청’, ‘포용’, ‘감사’, ‘존중’ 등 관계성 함양과 자기탐색에 도움이 되는 65개의 단어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상호작용의 촉진제

프로그램의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기간에는 무엇보다 ‘상호작용’의 촉진에 GRIP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회기 중에, 혹은 회기가 끝난 마무리 단계에서 자신이 우연히 받은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장점을 찾고 그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집단의 응집력이 공고히 됨과 동시에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진다.

- GRIP카드 소개 및 적용

◎ 목적

GRIP카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앞으로 적용하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준비물

GRIP카드, GRIP카드 기록지

◎ 진행순서

1) 카드에 대해서 소개한다.

♣ 지시문

여러분은 카드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카드놀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경험나누기)

여기 GRIP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 회기마다 사용할 카드입니다. GRIP이란 영어약자인데, 대인관계향상카드 즉 주변사람들과 더 잘 지내도록 도와주는 카드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드는 모두 65장으로 각각의 카드에는 한 장 한 장 “단어”와 그림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2) 각자 5장씩 나누어 준다.

♣ 지시문

그 카드를 읽고 잠시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는 지, 어떤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는지, 인상 깊은 지를 생각해 보세요.

3) 카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나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이야기한다.

4) 카드의 이름은 적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적는다.

♣ 지시문

나누어드린 GRIP기록지에 단어들을 적어놓습니다. “카드 이름”부분에 지금 받은 카드를 꼭 적고, 옆부분 “내용”부분에는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GRIP카드 목록

감사	강건함	결단	겸손	경청	공감	공정함	관심	긍정
놓음	도전	마음 알아주기	믿음	바른 사고	반성	배려	배움	베푼
사랑	성실	소신	수용	신뢰	신의	신중함	알아차림	여유로움
열정	예의	온정	용기	용서	우애	유머	유연성	이상
이해	인내	자극심	자유로움	자율	절제	접촉	정의감	정직
존중	즐거움	지혜	직관	직면	진솔함	집중	책임감	청결
칭려	초심	친절함	포용	표현	함께 기뻐함	헌신	협력	화합
효성	희망							

* 음영은 성인용 카드에만 포함됨

4 ■ 시민성 영역

4-1. 협상게임: 소가 필요해

1) 교육목적

- 협상은 상대의 요구를 찾는 것이라는 협상의 개념과 원칙을 이해한다.
-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경험한다.

2)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20분 내외

② 준비물

- 시나리오

(2) 교육구성

단계	주요활동	소요시간
도입	협상의 정의 및 유형 설명	5분
전개	모둠 편성 및 역할 설정	5분
	협상	5분
마무리	정리 및 발표	5분
		총 20분

3) 진행순서

- ① 협상에 대한 평소의 인식이나, 실생활에서 협상이 요구되는 상황을 질문하여 게임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 ②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후 협상의 정의를 명확히 인식시킨다.

Tip

협상의 정의만 언급하고, 협상의 유형은 게임이 완료된 후 언급한다.

- ③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두 사람이 한 팀이 되게 나눈다.
- ④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역할을 설정한다.

- ⑤ 한 사람은 강원도의 김씨 역할을, 또 한 사람은 부산의 이씨 역할을 맡는다.
- ⑥ 각 팀들은 자유롭게 앉아서 소를 사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 ⑦ 5분 뒤 협상을 끝내고 결과에 대해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 ⑧ 협상이 안 된 팀은 왜 안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 ⑨ 참고자료2의 협상의 유형을 언급하며 참여자들과의 feedback을 한다.

 Tip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한다.
 협상에서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것임을 주지시킨다.
 토론이 끝난 후 토론의 유형을 언급함으로써 올바른 협상방법을 알려준다.

소협상을 통해 입장과 요구(양파기법)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김씨와 이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그 다음 나누는 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즉 상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면 나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해서 경쟁적 협상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의 찾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삼는다면 자신의 요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4) 교육성과

- 협상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참가자 모두의 공동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상생을 배울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자료 1

역할설정

강원도 “나 푸줏간”
 정육점을 하는 나는 대전에 사는 “나 소 주인”씨가 질 좋은 소 5마리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를 사러 갔다. 그런데 “나 소 주인”은 그 사이 부산의 “가방끈 길어”도 소를 사러 한다며 5마리밖에 없으니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한다. 나는 소 값의 85%를 현재 가지고 있다. “가방끈 길어”와 협상을 잘해서 값도 깎고 내게 필요한 소를 꼭 사야 한다.

부산 “가방끈 길어”
 소가죽 가방공장을 하고 있는 나는 마침 대전의 “나 소 주인”씨가 좋은 소 5마리를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소 주인”씨에게 가서 소를 사려고 하니 “나 소 주인”씨는 강원도에서 온 “나 푸줏간”씨 역시 소를 사려고 하니 두 사람이 알아서 결정해 오라고 한다. 나는 현재 소 값의 60%를 가지고 있고, 소 5마리가 모두 필요하다. “나 푸줏간”과 협상을 잘해서 값도 깎고 내게 필요한 소를 꼭 사야 한다.

협상의 정의 및 유형

협상이란?

제3자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이해 당사자, 갈등 당사자가 서로 자신의 원하는바(이익, 요구)를 얻기 위해 자유롭게 벌이는 의견의 교환 또는 행위의 교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협상의 과정이다.

협상의 유형

- 대립적, 경쟁적 협상 :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이익, 요구를 최소화하는 대신 자신의 이익, 요구를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
- 절충, 타협형 협상 : 상대와의 좋은 관계유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요구를 동시에 고려(나누어 갖기식 기계적 절충, 타협)
- 협력적 협상 : 상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요구를 함께 최대화하기 위한 협상(창조적, 입체적 대안 마련)

4-2. 법과 우정: 천사와 악마게임

1) 교육목적

- 찬반토론과 역할게임을 통해 갈등상황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다.
- 준법의식과 참여의식을 통해 민주시민의 바른 자세를 익힌다.

2)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40분

② 준비물

- 시나리오, 보충자료

(2) 교육구성

단계	주요활동	소요시간
도입	모둠 편성 및 프로그램 개요 설명	5 분
전개	상황설명 및 역할 부여	5 분
	게임 진행 및 종결 후 토론	20 분
마무리	참고자료를 통한 피드백	10 분
		총 40 분

3) 진행순서

- ① 참가자들에게 교통규칙에 대한 평소의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위를 환기시킨 후 다음의 상황예시를 설명한다.

- 상황예시

친한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80Km로 주행하다가 사람을 치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다. 사고 이후 구속되어 있는 친구를 변호사가 당신에게 찾아와 친구가 중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친구가 제한속도인 30Km 이내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당신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역할게임을 해볼 거라고 말한다.

- ② 전체 참가자를 3인 1조의 모둠으로 묶고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붙어 앉도록 한다.
- ③ 임의로 역할을 나눈다. 가운데에 앉은 참가자는 차에 동승했던 친구역할을 맡는데 그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자라고 명명한다. 판결자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천사 역할을, 왼쪽에 앉은 사람은 악마역할을 맡는다.
- ④ 천사와 악마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역할에 대한 명확한 주지를 위해 천사들은 자신의 역할설명을 큰 목소리로 읽고, 그 후 악마들도 자신들의 역할설명을 큰 소리로 읽는다.
가. 천사역할: “친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원칙대로 해야지. 아무리 친구가 소중한데도 원칙을 저버릴 순 없어!”
나. 악마역할: “목격자도 없는데 어때. 친한 친구가 중형을 받으면 곤란하지. 그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당연히 증언해 주어야지!”

Tip

위에 제시된 상황예시 외에 주어진 설정은 없다. 즉, 천사와 악마가 판결자를 설득하기 위해 임의로 각색할 수 있다.

- ⑤ 참가자들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설득력을 키우기 위해 천사는 천사대로 모이고 악마대로 모여 전략회의 할 수 있게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
- ⑥ 이때 진행자는 판결자들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기존의 판단을 배제하고 천사와 악마가 하는 얘기만 듣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손을 들어주라고 말한다. 판결자들과 선서를 한다. “나는 선입견을 버리고 판결에 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선입견 NO! 편견 NO!”를 외친다.
- ⑦ 진행자는 설정한 토론의 주제상황의 요점을 짚어준다.
(친한 친구의 차에 동승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80Km로 주행했다, 사람을 치었다, 목격자는 없었다, 변호사는 위증을 요구하고 있다 등)
- ⑧ 게임규칙을 말해준다. 천사와 악마는 판결자 사이에 두고 의자를 틀어 서로 마주보게 한다.
가. 천사와 악마는 판결자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한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야기하다가 판결

자의 고개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면 말하는 걸 멈춰야한다. 때문에 판결자는 천사와 악마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로 토론은 할 수 없고, 판결자에게 질문 할 수도 없다.

나. 게임의 재미를 위해 판결자는 이야기를 듣다가도 어깨에 손이 올라가면 상대방을 보고 30초간 얘기를 들어준다. 즉,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게임 동안 천사 악마 각각 1번씩의 찬스만 사용이 가능하다.

- ⑨ 시간이 완료되면 게임을 멈춘다. 시간활용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참가자들을 위해 얼마 전에 도입된 배심원제도를 들며 최후변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천사와 악마에게 각각 30초간의 시간을 제공한다.



Tip

게임완료 후 배심원제도를 언급하며 재판관련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 진행자는 가망 없는 상황 속에서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가 최후의 변론을 통해 배심원을 설득하는 장면이라고 얘기 한 후, 시간을 제공한다. 최후의 변론을 통해 천사와 악마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을 갖고 판결자를 설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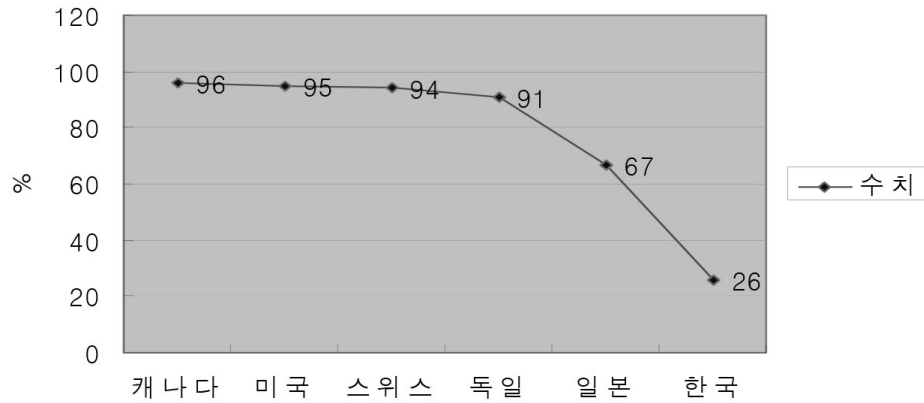
- ⑩ 시간이 완료되면 게임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은 판결자는 천사와 악마의 손을 각각 잡는다. 하나, 둘, 셋 하면 승자의 손을 높이 들어준다.
- ⑪ 승패가 정해지고 나면, 진행자는 판결자 역할을 했던 참석자들에게 결정의 이유를 묻고,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간다.
- ⑫ 게임을 마친 후에는 교육자들이 체험했던 가치갈등 상황에 대한 feedback을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처럼 아직 도덕성이나 사회화가 완속되지 않은 경우, 게임 이후 전체 참가자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예시자료 준비(통계나 여론조사 결과 등)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른 자세를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4) 교육성과

- 역할게임의 중요한 요소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의사표현을 높일 수 있으며 나와 다른 입장을 경험하여 서로 다름과 이러한 상황에서 가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배려심을 키울 수 있다.

같은 상황에 대한 국가별 선택 및 준법실태조사

국가별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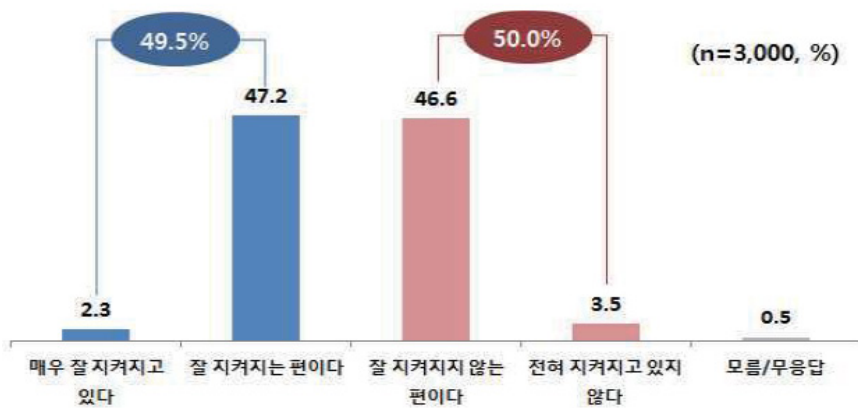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국가별로 조사해본 결과 캐나다, 미국, 스위스, 독일 국민의 90% 이상, 일본국민의 67%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답한데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단지 26%만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준법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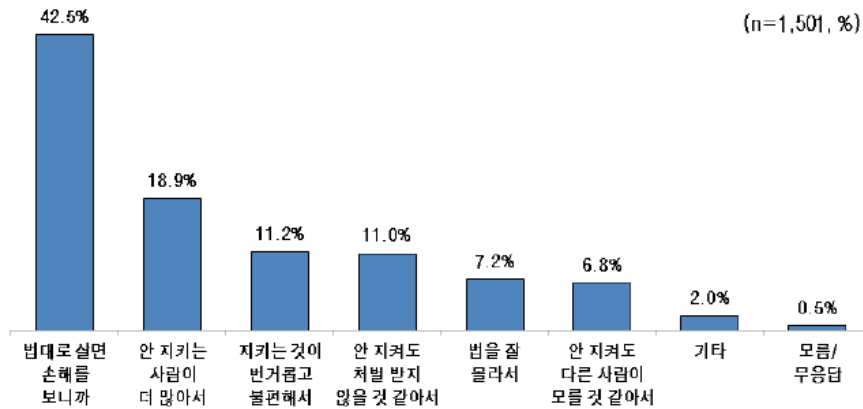
또한 2015년에 이루어진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서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지켜진다는 의견이 49.5%(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3% + 잘 지켜지는 편이다 47.2%)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 50.0%(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46.6% +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3.5%)보다 다소 낮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준법 정도



이 중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N=1,501)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법대로 살면 소해를 보니까'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18.9%),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11.2%),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11.0%), '법을 잘 몰라서'(7.2%)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6.8%)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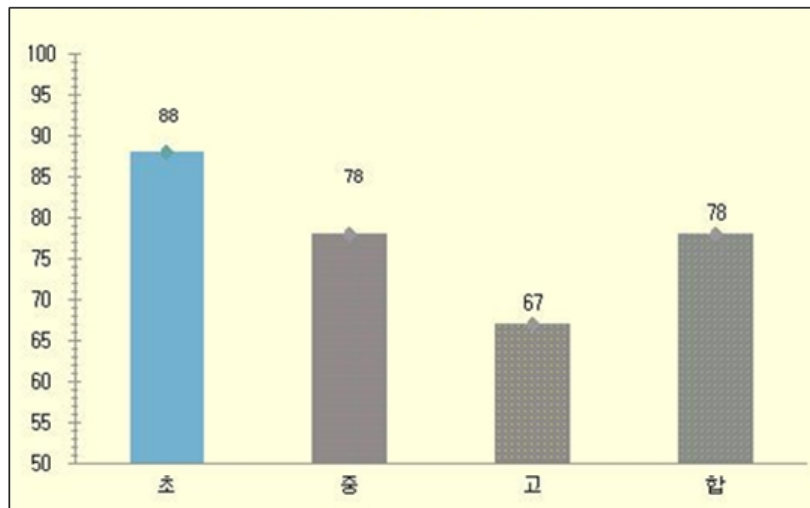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준법 정도에 대한 응답은 1991년 조사에서 17.6%, 2015년 조사에서 49.5%로 나타나 시간이 흐르면서 법 준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그러나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은 젊은 층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중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34.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2

'잘못 저질러도 안 걸리면 그만' 우리 청소년들 위험

고등생 45% "이웃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돼"



▲ 2015년 청소년 정직 지수 (숫자가 높을수록 정직함)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2015년 청소년 정직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생의 56%가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응답하는 등 윤리의식이 이전에 비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사단은 지난 9월부터 전국 1만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유효 응답자 4820명(초등생 1427명, 중등생

9 현대호 김명아(2015) 2015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45명, 고등생 1348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항목에 대해 초등생 17%, 중등생 39%, 고등생 56%가 괜찮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2년 당시 초등생 12%, 중등생 28%, 고등생 44%에 비해 전체적으로 윤리의식이 더 떨어진 수치다.

'이웃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초등생 19%, 중등생 30%, 고등생 45%가 그렇다고 응답해 2013년(초등생 19%, 중등생 27%, 고등생 36%)에 비해서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가능성이 없는 비양심적 행위에 대해서도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처벌 가능성이 있는 '컨닝' 행위에 대해서는 초등생 95%, 중등생 95%, 고등생 93%가 '하면 안 된다'고 답했지만 적발·처벌 가능성이 없는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낸다'는 초등생 15%, 중등생 58%, 고등생 71%가 '해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연구 책임자 안종배 윤리연구센터장은 "우리 사회가 왜곡된 자본주의에 매몰돼 물질주의·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그릇된 가치관에 의해 청소년들의 정직·윤리의식도 침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센터장은 "정직과 윤리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 청소년 스스로 느끼고 체감케 하는 인성 교육이 활발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2015.12.29

참고자료 3

국제 투명성·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가 세계 각 나라의 투명성·부패지수를 발표에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CPI)는 55를 기록 OECD국가의 최하위권인 43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투명성지수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국민소득은 25% 상승하고, 교역은 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제투명성·부패지수(CPI)

국가순위	국가명	CPI점수
1	덴마크	92
2	뉴질랜드	91
15	일본	76
30	부탄	65
43	대한민국	55
	라트비아	
	몰타	

위의 예시자료들은 결국 우리사회가 법과 원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기보다는 인정, 또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돈, 권력이 앞서는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에서도 자질 있는 후보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기보다는 자질 없는 후보가 지역주의, 연고, 학연에 편승하여 대표자로 선출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후보는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정치 대변자로서 국민과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민 1인당 3만 불 소득 시대의 진입, 사회정의와 생존권 수호,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시민사회 형성 그리고 신뢰받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법과 원칙이 지배되는 사회가 될 때 진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4-3. 모의선거: 기권은 싫어요

1) 교육목적

-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다.
- 민주주의 선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탈북청소년에게 모의선거를 통해서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2)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 ① 시간
 - 50분 내외
- ② 준비물
 - 시나리오, 역할봉투, 투표용지와 여론조사용지

(2) 교육구성

단계	주요활동	소요시간
도입	퀴즈를 통해 학습동기 유발	5 분
전개	역할 설정	10 분
	여론조사	5 분
	상황 제시	10 분
	투표 후 여론조사와 결과 비교 및 피드백	10 분
마무리	정리 및 발표	10 분
		총 50 분

3) 진행순서

- ①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선거관련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퀴즈로는 최근선거의 투표율 같은 간단한 문제가 좋다.
- ② 모의선거를 하기 전에 제시된 상황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당부하는 말과 함께 게임의 규칙을 설명한다.
- ③ 제비뽑기를 통해 후보자A, B와 유권자1부터 유권자9까지 역할을 정한다. 제비가 되는 봉투 안에는 자신의 역할과 선거당일의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적어놓았는데 용지가 두개 들어있는 봉투와 하나가 들어있는 봉투가 있다. 제비가 두개 들어있는 봉투를 뽑은 사람은 '역할지'라고 쓰여 있는 용

지를 먼저 열어보게 하고, '상황지'라고 쓰여 있는 용지는 열어보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 ④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와 여론조사용지를 배부한다.
- ⑤ 유권자들에게 선거가 이루어지는 가상의 시, 푸른시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상황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피해가 심각한데 전 시장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농촌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민심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농사를 짓는 마을 주민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

- ⑥ 후보자A, B에게 선거유세를 하게한다.
- ⑦ 유권자들에게 투표 전에 여론 조사한다.
- ⑧ 유권자 중에 제비 봉투 안에 용지가 두개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지'를 열어보라고 말한다. '상황지' 안에는 확실히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3경우), 보통 투표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2경우),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1경우)이 들어있다.

 Tip

두 번째 용지에 적힌 상황은 어떤 경우여라도 여론조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참여자 수에 따라 상황별 용지수를 조절한다. 이를 통해 투표 후에 설문조사결과와 명확한 차이를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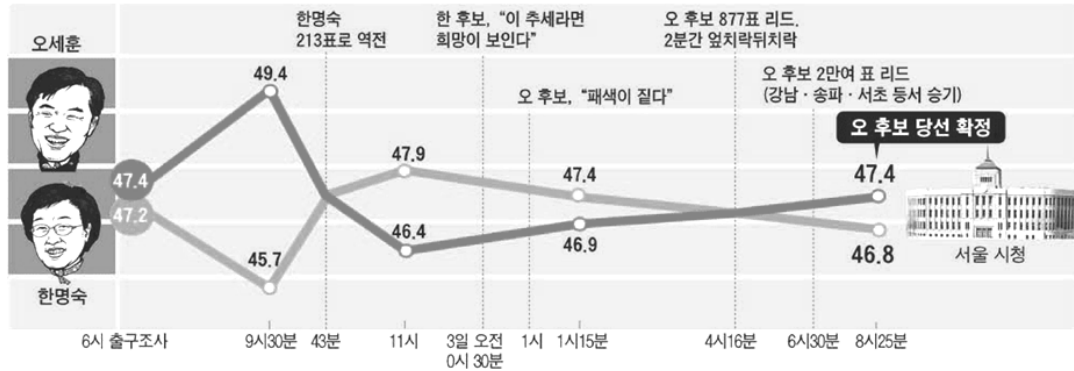
- ⑨ 투표 후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한다.
- ⑩ 참여자들에게 모의선거를 마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하여 공유한다.
- ⑪ 우리나라의 최근 선거 현황과 투표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모의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무관심의 위험성과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4) 교육성과

- 학교선거에서의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향후 올바른 유권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 또한 선거과정을 체험하여 선거의 중요성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고자료 1

서울시장 개표 '밤샘 레이스' 단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박빙의 승부였는데 선거다음날 새벽이 되어야 결과가 드러났다. 보시는 바와같이 출구 조사부터 접전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개표되면서도 여러 번 두 후보의 순위가 바뀌는 등 접전이 이어졌다. 불과 0.8%의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18대 대통령선거

18대

51.6% vs **48.0%**

선거일 2012년 12월 19일

당선자 **박근혜**

임기 2013.2.25. ~ 2018.2.24.

전국투표율 **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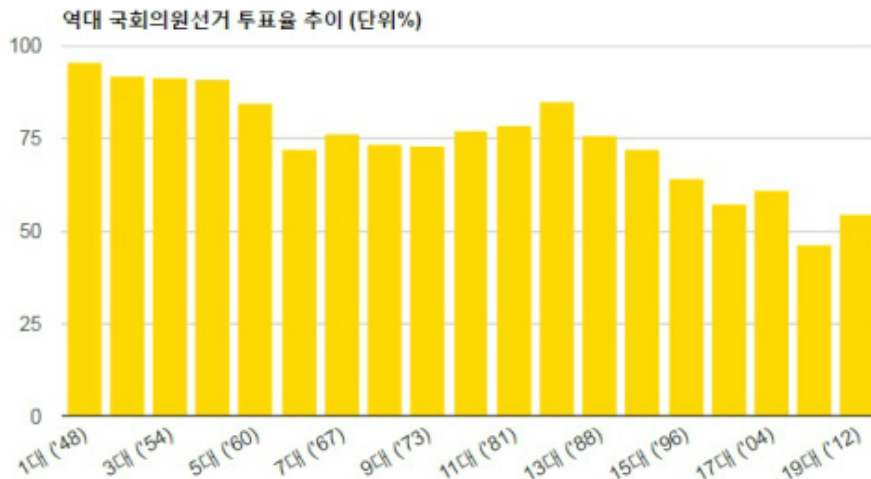
선거인수 40,507,842 명

투표자수 30,721,459 명

박근혜
새누리

문재인
민주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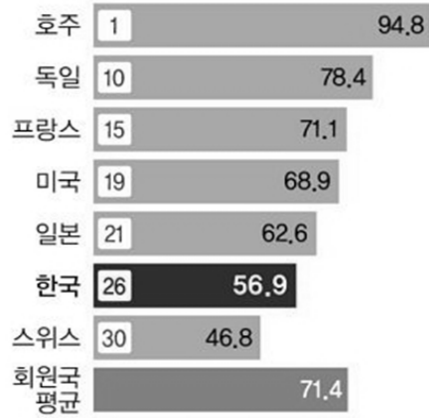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세계일보. 2016.4.2.

■ OECD 주요국 투표율 순위

(단위: %, 2000~2009년 평균)



자료: International IDE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 선거시뮬레이션: 꼼꼼히 따져보아요

1) 교육목적

-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가자 전원이 활발하게 의견 공유가 가능하다.
- 가상투표를 통하여 우리의 투표 자세를 돌아보고 올바른 자세를 확립할 수 있다.

2)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50분 내외

② 준비물

- 선거후보자 수만큼의 하드보드지와 인쇄물, 종이와 펜, 선거에 관한 기사 및 자료

(2) 교육구성

단계	주요활동	소요시간
도입	개요 설명 및 학습 동기 유발	5 분
전개	후보자의 선거공약 듣기	10 분
	1차 투표 및 결과 확인	5 분
	후보자에 대한 자료 획득 및 의견 공유	20 분
	2차 투표 및 결과 확인	5 분
마무리	평가 및 정리	5 분
		총 50 분

3) 진행순서

- ① 진행자는 한 조에 조원이 6명 정도가 되게끔 조를 나눈다.
- ②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료나 동영상을 보여주며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킨다.
- ③ 투표를 위한 3명의 가상 후보자 사진과 공약을 약 3분간 보여준다.



Tip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후보자의 얼굴과 공약, 경력사항 정도에 한정시킨다.

- ④ 참여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1차 투표를 진행한 후, 결과를 확인한다.
- ⑤ 각 조별로 실제로 집으로 오는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물처럼 만들어진 봉투를 나눠주어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한다.
- ⑥ 다시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2차 투표를 실시한다.
- ⑦ 투표결과를 확인한 후 왜 그렇게 나왔는지 1차 투표결과와 비교하여 알아본다.
- ⑧ 참가자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면서 참고자료를 활용해 선거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 권리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4) 교육성과

- 청소년으로서 선거의 중요성과 바른 유권자의 자세를 익힐 수 있다.
- 나아가 내 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배울 수 있다.

참고자료 1

가상 후보자 사진과 공약 내용



후보자 A
만 62세
이 지역 출신
서울의 명문대 졸업
전 푸른도지사



후보자 B
만 45세
이 지역 출신
미국 ○○○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대기업 대표이사 출신



후보자 C
만 50세
타 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
초선에 도의원 출신

후보자 A	후보자 B	후보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도지사 당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시설 유치, 노인 복지회관 건립 등의 공약을 지키지 않음. - 실무 경험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미납 - 공공 횡령 의혹 - 경제 전문가, 강력한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한 정치인상 수상. - 지방의원당시, 일자리창출과 복지증진 위한 다양한 입법 발의한 바 있음.
주요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도 내 전 지역 그린벨트 해제 - 지역 내 대학신입생의 등록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도 내 실업률 0% 만들기 - 세계 100대 글로벌 기업 지사 50곳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공급 늘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육성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정책

참고자료 2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을 투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를 위한 참고자료로는 신문과 방송 등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영평 대구대(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대구대 학생과 학부모, 친척 등 시도민 421명을 상대로 '6·2지방선거 투표성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투표의 주요 기준으로 후보의 소속 정당(2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약(24.9%), 인물 됬됨이(18.3%), 학력 및 경력(11.2%) 등의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 여부에 대해서는 '투표하겠다' 59.3%(242명), '투표하지 않겠다' 18.6%(90명), '모르겠다' 22.2%(89명) 등으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투표 참가자의 54.5%로 가장 높았고, 참가하지 않는 이유로는 '적당한 후보가 없어서'가 투표 불참자의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일신문 2010.5.26

“우편물로 뭐가 오긴 했는데 관심이 없어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엔 문자 메시지도 하나 받았고요. 무슨 시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보낸 거였는데... 근데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그날 뽑는다고요?”

고교 2년생과 중학교 2년생 아들을 둔 학부모 김경숙(44)씨는 6·2 지방선거 투표대상 중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주변 학부모들과 자주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육 이슈를 접하곤 했다”며 “막상 중학교에 진학하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어들게 되더라”고 말했다. “기왕 하는 선거라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뽑히는 게 좋죠. 하지만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너무 없어요. 차라리 학교에서 아이 편에 후보자 프로필을 한꺼번에 모아 보내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2010.5.24

표심을 드러낸 유권자들은 세대와 지역에 따라 지지후보가 엇갈렸다. 20~40대에선 안희정 후보, 50~60대 장·노년층에선 박상돈, 박해춘(한나라) 후보 지지자가 많았다. 세종시와 인접한 까닭에 ‘원안’ 고수론자인 안희정·박상돈 후보가 ‘양강’을 형성한 남부 지역에서도 젊은 층은 안 후보를, 장노년층은 박 후보를 선호했다. 25일 공주 계룡면사무소 앞에서 만난 이재홍(81)씨는 “여기는 무조건 3번(선진당)”이라고 했다. 후보자 이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숫자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이라며 “(나이가 드니)벽보를 봐도 이름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2010.5.26

4-5. 국제사회의 이해 공존과 협력

1) 교육목적

-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토론과 토의 준비단계로서, 참가자들 간의 상호 인사와 자기소개를 통해 전체회의 또는 소규모 집단작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갈등해결을 위한 현재의 마음상태를 파악한 후 갈등중재와 갈등해결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안다.
- 제로섬(zero-sum)이 아니라 윈-윈(win-win)방식의 갈등해결을 위해 귀와 입, 중국에는 마음을 열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배운다.

2) 내용

(1) 프로그램 개요

① 시간

- 40분 내외

② 준비물

- 깎지 않은 연필 1자루, 연필깎이, 종이카드 10장

(2) 교육구성

단계	주요활동	소요시간
도입	모둠 구성 및 준비물 배부	5 분
전개	협업 단계	10 분
	협상 단계	15 분
마무리	해결책이나 토론 결과의 소개와 정리	10 분
		총 40 분

3) 진행순서

- ① 참여자들을 세 개의 조로 나눈 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참여자 수에 따라 조원 수는 적절하게 조절 가능하다.
- ② 연필게임을 위한 도구로 깎지 않은 연필, 연필깎이, 여러 장의 메모지(약 10장) 등이 있는데 각 조는 이중에 한 가지씩을 선택할 수 있다.
- ③ 각 조의 임무는 ‘어떻게 하면 연필표시가 되어있는 메모지를 가능하면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주어진 것으로 제한된다.
- ④ 각 조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공동의 진행방식을 결정한다. 이후 다른 조와 협상에 들어간다. 이 때 끝없이 진행되는 협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행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도록 한다.

Tip

10장의 메모지를 갖고 게임할 경우, 4장 이상을 갖는 조가 승리하므로, 참여자들이 적절한 작전회의와 협상을 통해 게임에 임하도록 진행자가 유도한다.
 공개협상, 개별협상, 전체협상, 비밀협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상이 가능하다.
 1차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일정시간의 작전회의 후 2차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게임의 재미를 높일 수 있다.

- ⑤ 게임 종료 후, 해결책이나 토론 결과를 소개하고 정리한다.

Tip

이 게임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의 예로는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재현(유럽연합, 유고갈등 등), 다국적 협상에 있어서 신뢰와 안보를 만드는 각종 조치들의 의미 또는, 세계무역에 있어서 서로간의 의존성(연필은 원자재를, 연필 깎기는 산업이나 기계 혹은 기술적 Know-how를 그리고 종이는 자본을 의미할 수 있음) 등이 있다.

이 게임은 협상의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 어떤 때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야 win-win이 될 수 있다. 연필게임은 win-win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임이다. 또한 협상능력을 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4) 교육성과

- 게임 과정을 통해 서로 간에 마음을 열고 조금씩 양보할 때 진정으로 공통의 이익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닫힌 마음, 나 혼자만을 이익을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5 ■ 향후 실행계획 및 예산

연구진이 지금까지 제시한 부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17년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실행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수 진행과 피드백,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활용성 제고 및 연수 정례화, 평가 등의 일련의 작업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단계(2017. 1. ~ 4.):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완성, 모듈별 정교화, 파일럿 연수

제1단계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초프로그램을 토대로 연수대상인 탈북청소년을 중등과정과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특성상 장시간 동안의 연수 진행은 어려우므로 2~3시간 정도의 짧은 연수를 진행하는 형태로 모듈별 프로그램을 정교화 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최종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파일럿(1~2회 정도) 연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 한다. 파일럿 연수는 사업회가 직접 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안과 기존 탈북청소년 지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향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위하여 강사 양성방안과 교육 대상 확보방안, 그리고 2017년 연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의 작업은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주요 과제

-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체계화
- 강사양성과정 및 연수 계획, 교육대상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및 실행
- 파일럿 교육(남북하나재단 또는 탈북청소년 단체 협의·섭외) 진행/프로그램 개발자 또는 전문강사 위탁

○ 추진 방식: 외부 위탁, 파일럿 교육은 위탁기관에서 섭외 진행

- 소요예산: 1200만원~1500만원

■ 2단계(2017. 4. ~ 6.): 탄뎀파트너 탈북청소년 대상 강사양성 과정 및 프로그램 보급

두 번째 단계는 탈북청소년 및 남북한 청소년 공동 탄뎀파트너 민주시민교육이 파일럿 단계를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개발된 최종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 단체, 대안학교, 활동가 등에게 보급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북청소년의 특성상 이들의 교육은 북한 문화 및 언어,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요구된다. 남북청소년의 상호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목표로 하는 탄뎀파트너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강사양성과정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탈북 출신 강사와 남한출신 강사를 반절씩 양성하여 이들이 교육에서 2인 1조 형태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양성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강사양성과정은 내용적으로 시민문화 영역, 소통 영역, 기획 및 교수기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초강사과정, 심화강사과정, 전문강사과정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부터 강사과정의 예비참가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예비강사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측면과 적극적 참여를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추천한다. 강사과정은 약 10명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강사과정, 심화강사과정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강사과정은 실제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경험과 피드백, 보완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두 번째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관련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 보급하여 탈북청소년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홍보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주요 과제
 - 최종 개발 프로그램 통한 강사양성
 - 관련 단체에 프로그램 보급
 - 교육 대상 확보 등
- 추진 방식
 - 전문 강사 양성 과정(기초, 심화, 전문)
 - 기존 민주시민교육 강사 교육 이수자 또는 현재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강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또는 추가교육 형태
 - 탈북출신 강사와 2인 1조 형태로 강사 양성(탄뎀파트너 전문강사)
 - 대상 및 인원: 총 10명(기존 강사 5명, 탈북자중 강사 대상 5명)
- 소요예산: 400~600만원(강사료, 교재 인쇄비, 식비, 운영비 등)

■ 3단계(2017. 7. ~ 11.):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진행

이 단계는 1단계의 파일럿 교육과 이를 통한 최종 프로그램개발이 완료되고, 강사연수 중에서 심화과정이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진입하기 전 당연히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교육대상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는 집합교육 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관련단체와 대안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 교육대상자를 직접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 학습대상자가 있는 단체, 학교,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방문연수, 그리고 1박 2일 워크숍 형태의 연수로 진행된다. 연수는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남북한 청소년이 같이 참여하는 탄뎀파트너 민주시민교육 연수로 구분된다. 연수는 양성된 전문강사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 주요 과제
 -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진행
- 추진 방식 및 대상
 - 총 6회(집합교육 1회, 방문연수 4회, 1박 2일 연수 1회)
 - 대상 및 인원: 총 100명(탈북청소년과 남한출신 청소년 반절씩으로 구성)
 - 소요예산: 700~900만원(강사료, 인쇄비, 식비, 운영비 등)

■ 4단계(2017. 12): 워크숍(평가 및 향후 연수 계획 수립 등)

마지막 단계는 1년간 진행된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교육진행 등의 전반에 관하여 평가하고, 2018년 연수계획 수립 등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내부 평가와 더불어 관련 단체 담당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교육의 지속성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 분야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로 발전시킨다.

- 주요 과제
 - 개발 프로그램, 연수 등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평가
 - 향후 연수 계획 협의 및 네트워크 구축
- 추진 방식 및 대상 등
 - 방식 및 장소: 1일(서울 인근) 또는 1박 2일 워크숍(수도권 외)
 - 대상 및 인원: 내부, 관련단체 관계자 등 총 20명
 - 소요예산 : 약 400만원(1일 경우, 장소임대료, 교통비, 식비 및 운영비 등)

참고문헌

- 디터 놀렌 저. 신두철·김원 역. 2004. 『선거법과 정당제도』. 서울: 엠-에드.
- 신두철. 2013.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4(2): 97-113.
- 신두철. 2014.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청소년 교류의 제도화와 정치기회구조.” 『유럽연구』. 23(4): 27-55.
- 신두철 외 역. 2007. 『시민교육방법 트레이닝』. 서울: 엠-에드.
- 신두철·허영식. 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II: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신두철·허영식. 2012. 『민주시민교육 정석』.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신현옥 외.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16. 『'16 탈북학생 통계 현황』.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2016 통일교육 운영계획』. 서울: 통일교육원.
- 통일부. 2016. 『2016 통일백서』.
- 한만길. 2012. “탈북 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과제.” 『기독교와 통일』. 제6권 : 67-77.
- 한만길외. 2010. 『탈북 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의 교육제도

남한		나이	북한	
고등 교육	대학원 (박사과정) 2~3년	26	고등 교육	박사원·연구원 2~3년 대학 4~6년 단과대학 3~4년 고등전문학교 2~3년
	대학 4~6년	25		
	전문대학 2~3년	24		
	대학원 (석사과정) 2년	23		
	단과대학 4년	22		
		21		
		20		
		19		
		18		
		17		
중등 교육	고등학교 3년	16	중등 교육	고급중학교 3년 초급중학교 3년
	중학교 3년	15		
		14		
초등 교육	초등학교 6년	13	초등 교육	소학교 5년
		12		
		11		
		10		
		9		
		8		
취학 전 교육	유치원 6세미만	7	취학 전 교육	유치원 2년 놀이반(1년) 낮은반(1년) 탁아소
		6		
		5		
		4		
		3		
		2		
1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탈북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발행일 2016년 12월 5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6층
연락처 전화번호 02-3709-7500, 7527
홈페이지 <http://ikd.kdemo.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표지원안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ISBN 979-11-87593-37-9 (05300)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6층

전화: 02)3709-7527 팩스: 02)3709-7520

비매품



9 791187 593379

ISBN 979-11-87593-37-9